

# 定慧社

겨울호 · 제18호 불기 2542년



松廣寺 傳統講院  
송광사 전통강원

## 新定慧結社의 마음으로(2)

우리 출가자는 세간의 명리를 버리고 권속의 기대와 눈물을 등진 채 삭발염의한 수행자로서, 그 근본목적은 번뇌를 쉬고 생사를 해탈함에 있다. 그러나 근자의 현실을 돌이켜보면, 수행자로서의 본분과 자세를 잃고 세간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고 있다.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세상에서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현상만을 진정한 실체로 인정하고, '행복은 물질의 이용과 소비에 따른 쾌락의 향유에 있다'고 여기어 인간의 심신을 수고롭게 하고 있다.

다양한 가치관의 돌출에 따른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보편적인 규범과 도덕은 흔들리고, 사회는 고립과 분열이 확대되고 있다. 이런 사조의 영향이 우리 승가에도 침습되어, '출가목적의 불명확성' '지계정신의 쇠퇴' '무소유정신의 쇠퇴'로 승가는 지금 혼돈과 분열의 길을 가고 있다.

부처님의 성도 이후에 형성된 승가공동체가 면면히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양보'와 '화합'이라는 승가의 명제가 실현되었기 때문이다.

승가가 세간적인 가치관과 명리를 쫓아 분열과 반목을 일삼았던 저 고려말의 상황이 결국 한국불교를 저해했던 큰 요인임을 상기한다면, '승가의 화합 속에 진정한 수행과 불법홍포(佛法弘布)가 있을 수 있다!' 라는 분명한 성찰이 있어야 할 시기가 아니겠는가?

따라서, 우리 학인들은 보조스님의 정혜결사이념을 되살려 다음과 같은 실천행을 한다.

- 一. 理懺事懺 : 삭발일마다 출가의미를 새롭게 하는 대참회를 실시한다.
- 一. 諸佛敬讚 : 예불·공양·운력에 신심을 다하며, 항상 그 의미를 관(觀)한다.
- 一. 受持戒律 : 포살에 꼭 참여하며, 계율을 지키고, 청규에 따라 화합한다.
- 一. 勤修定慧 : 간경과 기초수행을 생활화하고, 행주좌와에 늘 깨어있도록 한다.
- 一. 捨出名利 : 시주물을 아껴쓰고, 무소유정신을 함양한다.
- 一. 自利利他 : 탁발 등을 통하여 아집을 버리고, 자비의 회향을 배운다.

이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생활에 구현하여, 청정하고 바른 승가상과 수행가풍을 확립하고, 외부로 향하던 마음을 내부로 돌이켜 신 정혜결사의 밑거름이 되며, 보조스님의 숨결이 살아있는 송광사강원을 이루고자 정진한다.

# 定慧社

겨울호 · 제18호 불기 2542년



발행처/송광사 강원  
발행인/智雲(講主)  
편집인/덕우(입승)  
편집장/보각  
편집/진관, 혜성  
사진/연일

발행일/2542년 2월 22일  
주소/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0661)755-5300, 5302

인쇄/도서출판 法供養

## 조계의 물소리

신정혜결사의 마음으로(2) 편집부

## 사진 속 이야기

2 조계설경 편집부

## 특별기획 / 해외교류

4 대만 불광사 불학원과의 자매결연

5 치사(致詞) 지운

7 대만불교를 보고 진옥

9 편지글 석명화, 석명보

## 정혜탐방

10 역경원장 월운 스님 편집부

## 경전 한구절

15 번영하는 길 편집부

## 회광반조

16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자 도빈

17 녘제결사 녘제

18 전화위복 정산

20 겨울날의 소고 연일

21 간경 광화

## 화보와 소식

22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 특별기고

26 교육원 개원 이후 활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지운

## 지대방이야기

31 대나무 담장 본공

33 반야용선 진관

35 남해일출 동림

## 학인논단

36 언어문자와 깨달음 도담

## 입방기

39 끝없이 가는 이 도운

41 초발심 학인 보은

## 원전번역

43 수심결(2) 혜성

## 정혜사 안내

46 도서안내, 소년소녀가장돕기, 테이프 판매 편집부

## 편집후기





### 曹溪雪景

아침엔 雪滿山兮 저녁에는 月滿庭다  
서방의 佛世界니 들 이보다야 더힐소냐  
이 한 때 마음도 희니 여가 바로 佛世界라

시 / 인암 스님

사진 / 편집부

## 대만 불광사 불학원과의 자매결연

불기 2542년 11월 9일 대만 불광사 불학원(강원)과 송광사 전통 강원이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송광사와 불광사와의 관계는 구산 대선사님 때 국제 선원에 유학온 선방스님들로부터 인연을 맺기 시작하여, 현 방장 보성 큰스님께서는 지속적인 교류 및 수계계단 참관 등으로 직접적인 관계를 돈독히 하셨습니다.

이에 송광사 강주 지운스님께서는 세계일화(世界一花)라는 부처님 사상을 이어받아, 국제화 시대에 전 인류의 고통 해결을 위한 불교도의 단합과 양 강원의 지속적인 학술교류를 통해서 각국의 불교 발전과 21세기의 새로운 가치관 창출을 위해 불광사와 협의 중, 불기 2542년 11월 불광사의 초청으로 방장스님을 비롯 강주스님, 강사스님, 대교반스님들과 대만을 방문하여 한국 강원으로서는 유일하게 불광사 불학원과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협의 내용으로는

‘첫째, 양국의 중요한 행사를 계기로, 피차의 문화예의와 민간풍속 및 종교현황을 이해하기 위하여 서로 방문하며, 동시에 양 학원의 학사일정을 서로 견학, 양 학원의 장점을 결합하고, 공동으로 국제 불교를 추진 발전시킨다.

둘째, 교수와 연구원을 파견함과 아울러, 상대 학원의 단기특강을 추진, 상호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교학자료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

셋째, 학술회의를 거행하고, 정기적으로 불학연구계획을 공동 연구진행하며, 논문 및 잡지를 정기적으로 합작출판한다.

넷째, 우수한 학인을 서로 파견하여, 수행에 매진케 하고, 교학을 연구하는 학인에게 장학금을 제공한다.

다섯째, 각종 도서출판물과 기록물 및 기타 출판물을 교환한다.

이는 1600년의 불교 전통을 이어온 한국불교와 단기간에 불교국가를 건설한 대만불교가 신·구의 조화 속에서 서로의 탁마를 통한 발전을 모색할 수 있는 신기원을 이룰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방문 기간 중에 불광사내 각종 학교를 참관하고, 좌담회를 통해 한국 불교를 소개하였으며, 불교 복지병원과 복지센터를 방문하여 불광사의 선진적인 활동내역을 배울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하였습니다.

올해 3월에 2차 방문팀이 불광사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한국 불교사와 사상에 대한 학술 세미나 및 토론회를 개최하고, 또한 유학생을 파견하는 등 본격적인 교류가 시작되니, 동북 아시아의 대승불교가 다시 찬란한 꽃을 피울 서곡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치사(致詞)

한국의 송광사 講院과 중국 佛光寺 佛學院이 형제체결을 하는 귀한 자리에서, 이처럼 양국의 원로 대덕 스님들을 모시고 치사를 하게 되어 큰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급진적이고 광범위한 변화를 보였다고 평가 받는 20세기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보 통신의 발달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님들의 수행환경이나 중생제도의 방법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특히 인류의 발전과 함께 자연의 파괴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인간의 삶에 대한 위협은 전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 21세기에는 반드시 선결과제로 제시될 것이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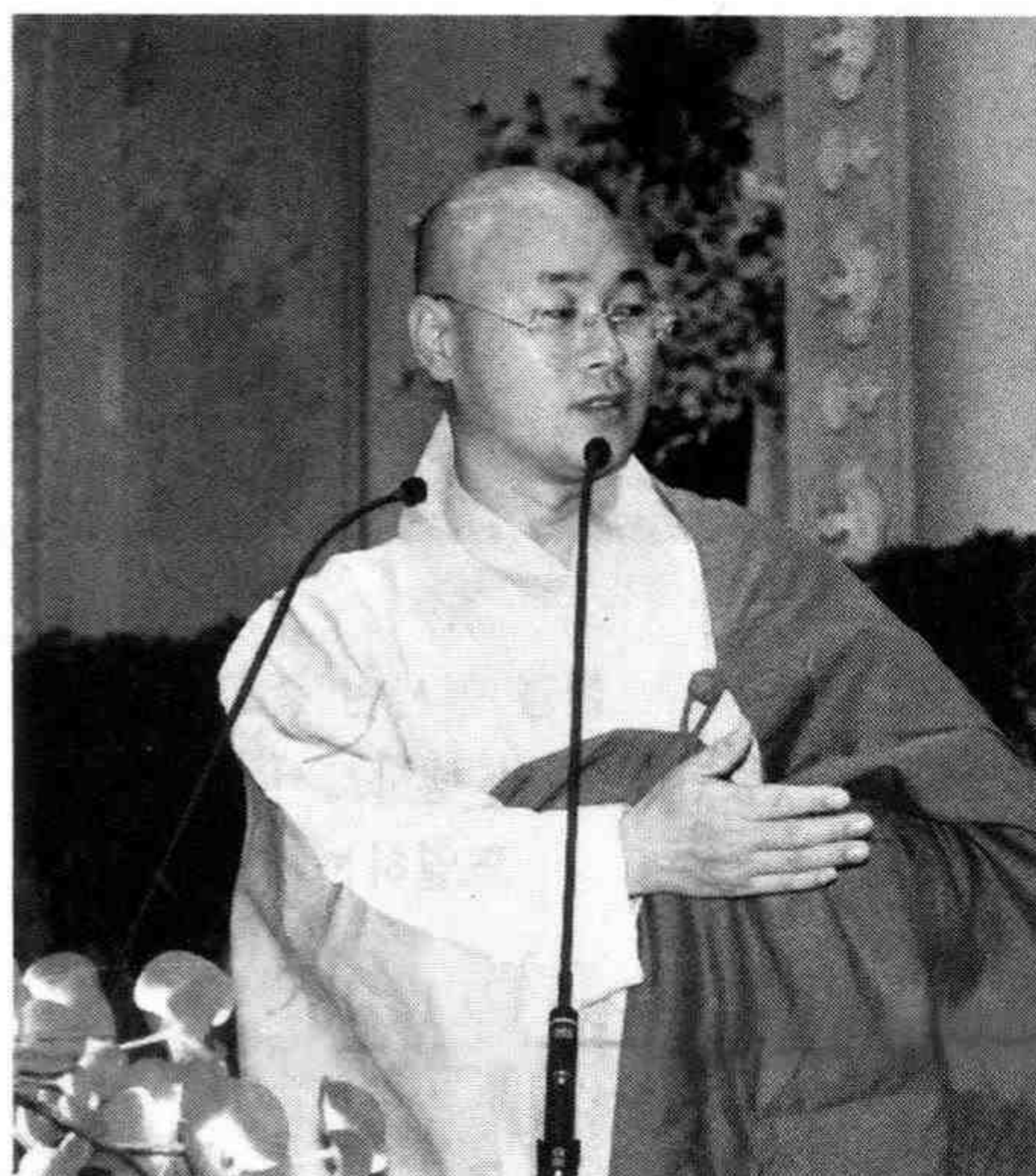
한국의 불교와 중국의 불교는 오래 전부터 관계를 맺으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해 왔습니다. 민족과 풍토, 언어와 관습 등 모든 면에서 매우 다른 모습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형제관계의 새로운 인연을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불교라고 하는 무한한 세계 속에서 하나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양의 이성중심적 철학체계가 명확한 실패로 20세기를 마무리한 지금, 직면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대안은 불교라고 생각합니다. 분석적이고 국지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온 우주를 하나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너와 나의 삶이 다르지 않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환경문제를 비롯한 인류의 위기를 함께 생각할 수 있는 접합점을 마련할 것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불교가 각각의 환경 속에서 발전시켜 온 전통을 하나로 모아 인류사적 과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보자는 것이 금번 형제 강원 체결의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세기의 희망이 다름 아닌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비롯된다는 사실의 확인이기도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한국과 중국의 형제 강원 체결을 慶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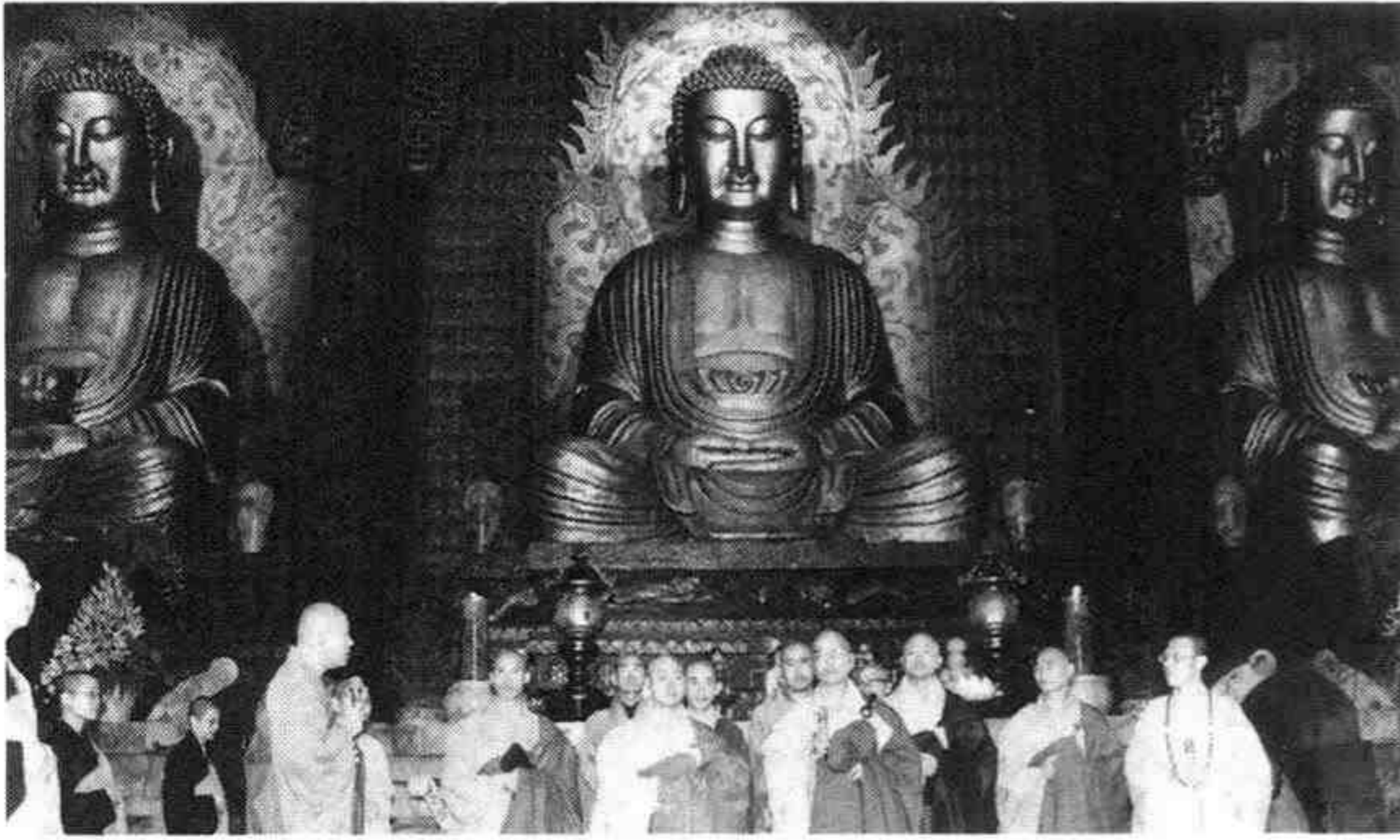


조계종 조계총림 송광사 전통강원

講主 지운 합장

... 불광사는 38년전 星雲 대화상의 원력으로 불사를 시작, 현재 대만 불교를 선도하는 임제종 계통의 사찰입니다. 정토염불선을 주로 수행하며, 도덕적인 삶을 목표로 하여 교육사업에 매진, 종합대학인 불광대학과 불교 교육기관인 불학원과 태남강당, 남화관리학원, 송학학원(사회교육기관) 등 각종 학교와 병원 등 많은 복지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곳곳에 포교사를 파견 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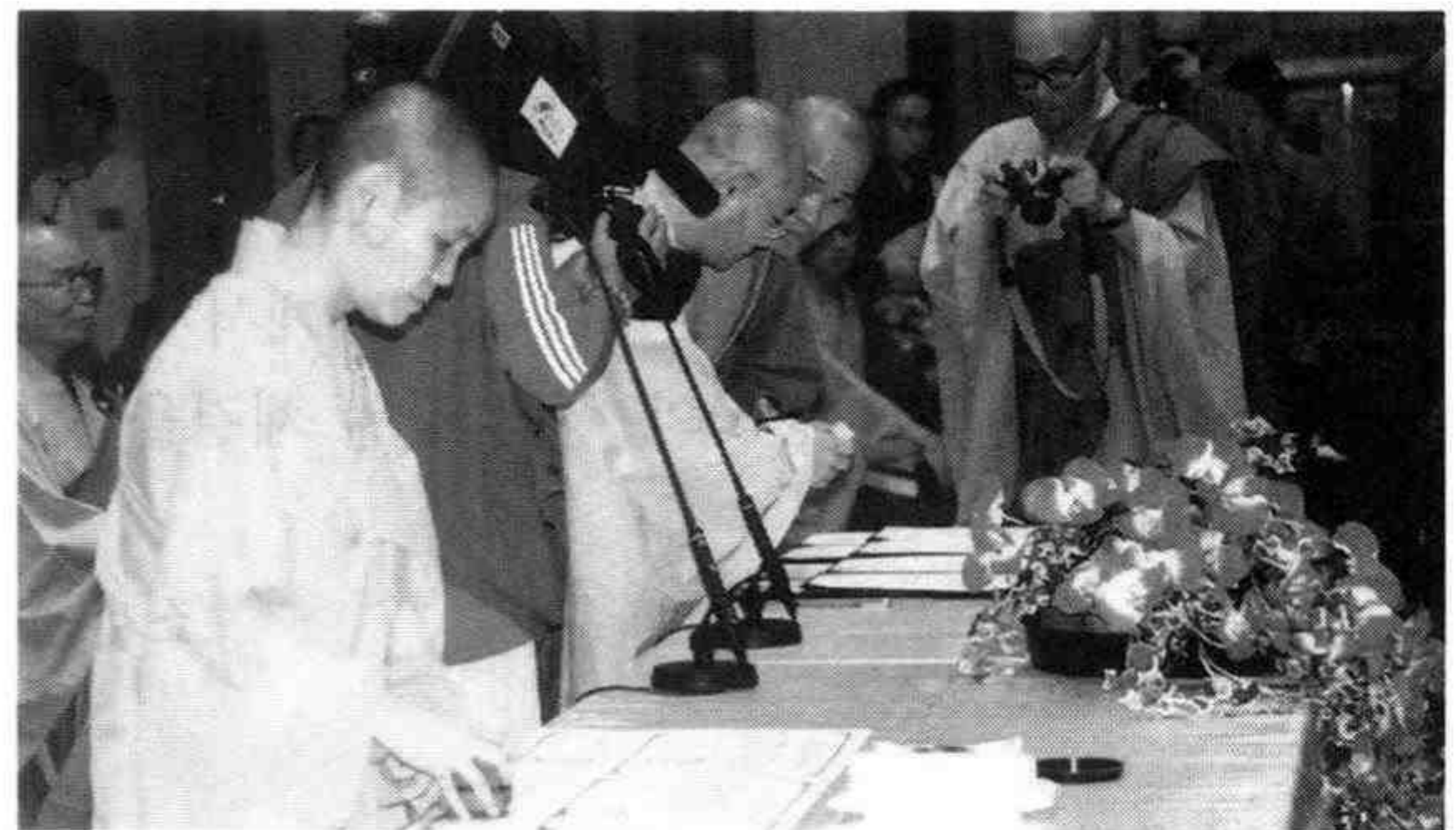
◀ 불광사 대웅전 참배 후 방장스님의 인사말

환영 행사인 종고제명(鐘鼓齊鳴) ▶  
(종단 전체의 행사로서 불광사 전대중이  
도열하는 최고의 환영 행사)



◀ 남화관리학원 교수학생과의 간담회

불광사 총림학원과 자매결연식 ▶  
(사진 속은 불학원 원장 依華법사님)





## 대만불교를 보고

진옥(眞玉) / 송광사 외래강사

우선 결론부터 말하면 대만불교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인다. 이 희망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한국불교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한국불교가 갖고 있지 못한 몇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다.

그 첫 번째가 계율(戒律)부분인 것 같다. 한국불교는 조선의 억불정책과 일본 제국주의의 말살정책, 그리고 미국이 주도했던 군정하에서의 불교분열정책으로 이어지기까지 모두다 계율의 타락에 그 역점을 두었던 것인데, 그로 인해 계율의 타락은 결국 승단의 화합을 잃게 하였고 국민으로부터 도덕적 신뢰를 잃게 했다. 이러한 일은 일이 년이 아닌 거의 육백 년에 걸쳐서 형성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대만불교는 그 역사가 아주 짧지만 중국불교가 갖고 있었던 계율의 특성을 대체로 잘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승단(僧團)의 화합은 이욕(離慾) 하는 데서 비롯되는데, 그 욕심을 떠나게 하는 주체적 행동이 바로 계율이며 계율이 지켜진다는 것은 화합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다. 전통 승단에서 보면 조금 문제가 되는 구조적 모순을 갖고 있지만(비구와 비구니의 관계) 이는 전법의 짧은 시간과 전법 당시의 지역적인 상황인 것으로 이해가 되었다.

두 번째는, 대만불교의 희망은 큰 원력을 볼 수 있었다는 점이다. 40년 동안 대만을 불교국가와 같이 만들어 놓은 불광사의 성운노사(老師)의 자비보살행의 원력(願力)은 나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모습이었고, 화연(花蓮)의 징엄(澄嚴)비구니 법사는 고산족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병의 고통을 건져주기 위해서 판잣집에서 시작하여 의과대학과 세계적 종합병원을 설립해서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후원인들이 봉사할 수 있는 보살행을 실천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보살행의 실천을 수행으로 보고 중생구제에 매진하는 모습은 우리 한국불교와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불광사의 노사(老師)를 중심으로 승려교육기관인 불학원과 일반대학, 사회복지시설, 사회교육시설, 포교시설은 내가 평소에 생각했던 바가 모두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기쁨과 함께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불교가 특수한 집단에서나 하는 어렵고 고집스럽고 고고(高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중생들과 같이

하는 대중불교로, 현장에서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다. 원력을 크게 세우고 자비행을 실천하는 모습에서 감명을 받았다.

세 번째는, 모든 수행과 포교의 시스템이 정법(正法)을 알리고 실천하는데 희망이 있다. 우선 한문이 자기 글이라는 점에서 우리와는 달리, 읽고 들으면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불법이 일반화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으며, 미신이나 우상으로 빠지거나 신비주의나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서 항상 중심을 잡아 주는 것으로 보였다. 우리나라 불교는 문자의 장벽과 아울러 기복적인 성향 때문에 부처님 말씀이 잘 유통되지 못하고 신비나 허무주의 내지는 욕망의 성취수단으로 불교라는 것이 이용되는 성향이 있는데 대만불교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네 번째는, 새로 시작했다는 것이다. 오래된 것일수록 껍질이 두껍고 속이 썩기 쉽듯이 한국불교는 전통성을 강조한 나머지 미래 지향적이기 보다는 과거 지향적인 모습이 강한데, 이를테면 집을 하나 짓는 데도 신라시대의 건물을 지금 짓고 있는 것은 매우 시대착오적이며, 낭비이고, 이 시대의 새로움과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아닌 것과 같다. 반면에 대만불교는 과거의 껍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생각이 자유롭고, 새롭고, 미래지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통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므로 대만불교가 한국불교의 전통과 선원과 강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진 것도 대만불교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이기도 하다.

다섯 번째는, 교육에 대한 관심으로, 승려 교육과 관리에도 매우 철저한 것 같다. 우리의 느슨하고 방관적인, 즉 교육받을 피교육자가 알아서 교육받아야 하는 기성 중진들과 교단구조의 비교육적 모순은 앞으로의 희망도 갖기 어렵게 해주는데, 대만의 승려교육과 학교를 통한 일반 엘리트교육, 그리고 신도교육의 내용들을 보고 상당한 미래의 희망을 가져도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이외에도 많은 부분들을 볼 수 있었으나 다섯 가지로 정리한 것은 내가 보는 견해로는 이 정도가 한국불교의 문제를 통해서 본 그 상대적 비교였기 때문이다.

좋은 점만 말한 것도 역시 좋은 점을 통해 우리불교를 반성해 보기 위해서이다. 대만불교에서 배울 것이 우리에게서 대단히 많아 보인다.

◇ 이 글은 98년 8월 삼장연찬회에서 중국선종 사찰 답사시, 방문했던 조주관음원(백림사)의 조선족 스님이 보낸 서신입니다.

지운(智雲) 큰스님 전상서

귀의 삼보하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인연으로 스님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순례를 마치고 무사히 귀국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보성(菩成) 방장스님과 여러 스님들께 저의 문안 전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필을 들게 된 것은 다름아니라 스님께 폐를 끼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저희 부모들은 슬하에 자식이 우리 형제뿐이지만 아무런 고려 없이 선뜻 우리의 출가를 승낙했습니다. 하여 우리 형제는 하루 한시에 백림사 주지 정혜스님의 제자로 삭발을 하고 저는 이미 복건 광화사에서, 동생은 홍콩 보련선사에서 모두 비구계를 받았습니다.

저는 지금 백림사 지객으로 일을 보고 있고 동생 명관스님은 부사로서 재무, 회계 일을 맡아하고 있습니다. 각기 자기 일에 바빠 보내다보니 조선족으로 우리 형제 뿐이어서 자기 말을 할 사이도 없습니다.

중국에 230만이 되는 조선족이 살고 있으나 조선말로 하는 사찰이 없고 출가승이 겨우 10명이 되니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또한 저희들은 아직 자기 민족 문화와 민족불교에 대해서도 똑똑히 모르고 자기 언어도 잘 쓸 줄 모르니 더욱 안타깝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자기말인 한국어로 우리의 불교를 공부하고 싶던 차에,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송광사 강원 스님들과 인연을 맺게 되어 얼마나 기뻐는지 모르겠습니다. 비록 송광사에 대한 정황은 모르고 있지만 16국사의 배출, 보조국사스님의 '무'자 화두, 절구통수좌 효봉스님의 '무'자 화두 등, 어쩐지 조주스님과도 인연이 깊은 듯한 송광사의 놀라운 발자취를 오래 전부터 중국의 도반들과 늘 외우곤 했습니다. 저는 정말 꼭 송광사 강원에서 공부하고 싶습니다. 중생제도에 민족구별이 없겠지만 저는 특히 우리 230만 동포들과 모든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의 훌륭한 제자가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스님. 꼭, 노력해 주세요. 폐를 끼쳐 미안합니다.

스님의 가르침을 고대하면서 란필(亂筆)을 이만 줄입니다.

지운스님과 여러분들 법체 건강과 불사원만을 부처님전에 기원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아미타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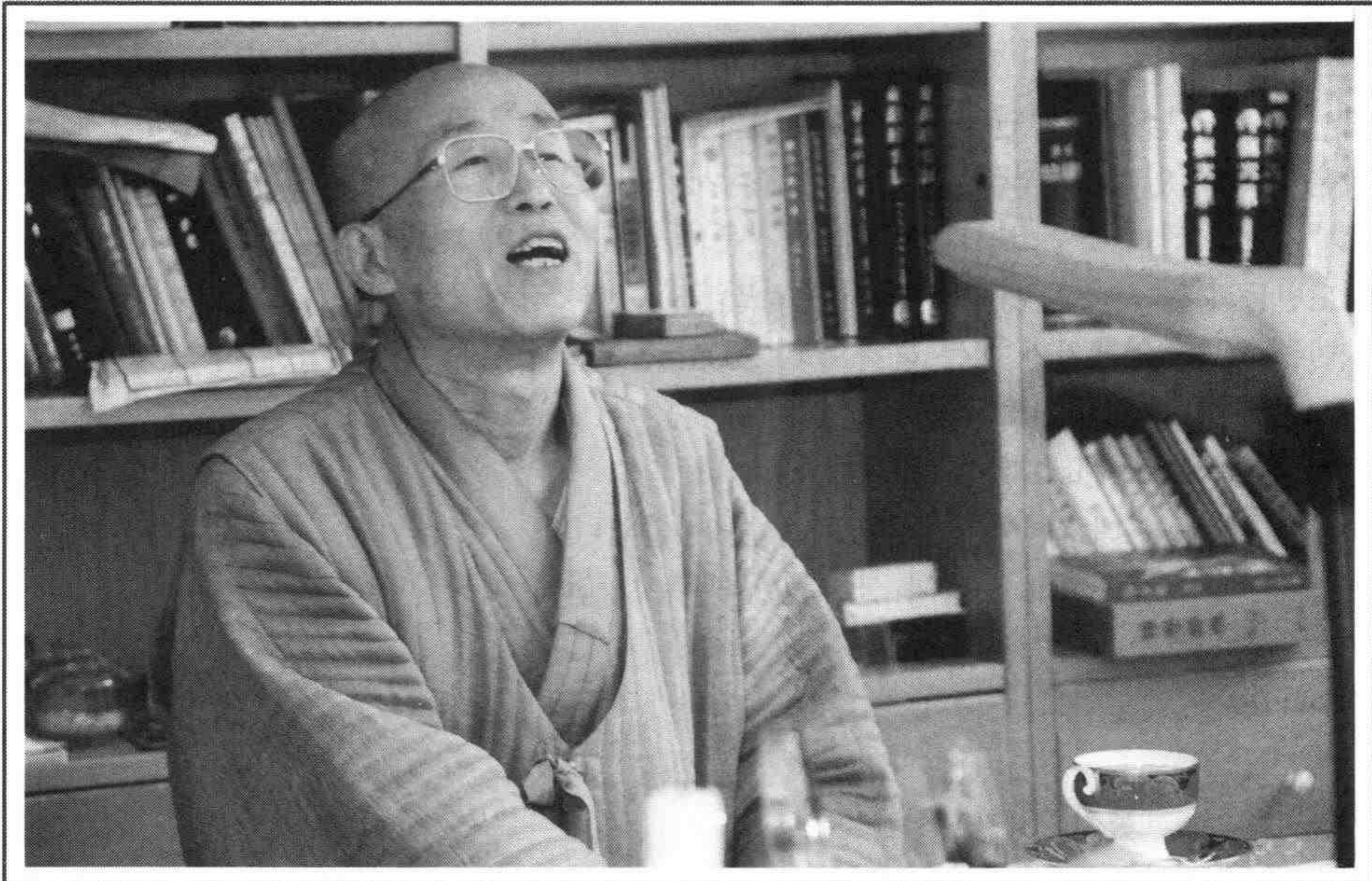
불기 2542년 8월 15일

釋明和, 釋明實 頂禮

역경원장  
월운 스님

편집부

‘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크낙새가 산다는 숲 광릉내는  
온 누리에 맑음을 주는 생명의 공간입니다. 그곳 수목원을 끼고  
자리잡은 봉선사에는, 후진양성을 위해 고회를 맞으신 지금까지도 경을  
설하시며 30여년간을 올곧이 역경에 전념하신 월운 큰스님이  
주석하고 계시어 한국 불교의 사표가 되어 주셨습니다. ’



질문 : 얼마 전 고회를 맞으셨는데 건강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좋습니다.

요즈음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내십니까?

답 : 여기 봉선사 주지 소임을 보다가 그만 둔 뒤로는 훨씬 나아. 세끼 공양과 조식예불은 할 만합니다. 여기 주지 스님이 운동하시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스님이 아침마다 나를 산으로 데려 가는데, 며칠 다니다 보니 이젠 일과가 되어 버렸어요. 주로 학인 가르치고 남은 시간은 역경원 일을 좀 하고, 재가자를 대상으로 한 불경서당이 꽤 알려져서 철학·동양철학을 전공하는 석·박사 등 12~13명 정도가 와서 금요일에 경전 강의를 받고 있습니다.

질문 : 여기 능엄학림에서 얼마 전에 첫 졸업생을 배출 하셨는데, 능엄학림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답 : 능엄학림은 강사 양성을 위해서 개설했습니다. 처음에 학림 이름을 뭐로 할 것이냐? 하다가 여기 노스님께서 능엄경을 주로 공부하셨기 때문에 능엄학림이란 이름을 붙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는 능엄경만 보는 줄 알아요. 사실은 강사가 되려면 능엄경만 가지고는 안되고, 화엄경까지 꿰뚫어야 되거든요. 그런 오해가 있어서 이름을 바꾸려고 합니다. 왜정 때 여기에 흥법강원이 있었거든, 그래서 적당한 시기에 흥법학림으로 개명할 생각입니다.

이번 11월에 8명을 졸업시켰고 다시 학인을 모집하여 내년 3월에 개강을 하는데 벌써 학인들이 모이고 있어요. 3년 과정인데 화엄경을 주된 경전으로 하고, 글 보는 실력을 배양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입니다. 저의 지도 방법이라면 “경을 막연히 보지 말고 용단폭격하듯이 확실히 정리하면서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어찌 되었건 여기에서는 글 새기

는 걸로 실력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질문 : 스님께서서는 현재 역경원장으로 계시면서 역경에 매진하고 계시는데, 역경원의 조직 및 역경 현황을 말씀해 주시죠.

답 : 종단 내외로 도제양성, 포교 등과 역경사업을 시행해야 한다는 여론들이 일기 시작해서 역경 부분은 1964년 2월에 사업의 주체를 동국대학교로 하고 역경원이 발족되었습니다. 역경원은 사무직과 역경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사무직은 제책, 금전 관리, 원고청탁 및 취하를 담당하였고, 주된 조직은 역경위원으로 번역위원·증의위원·윤문위원·유통위원이 있었는데, 향곡·석주·자운·법정스님이 유통위원이셨고, 나는 번역위원이었습니다. 그때 송광사 법정스님은 역경국장 소임을 맡았어요. 초창기에 번역위원이었던 사람 중에 현재 나 한 명밖에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역경현황을 본다면, 처음에 한글 대장경의 책 분량이 700페이지 기준으로 250책이면 된다고 예상하고 번역을 시작하였다가 중도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책의 형태와 분량이 바뀌는 바람에 계획에 차질이 생겼어요. 책의 분량을 500페이지로 바꾸고 180책 정도를 번역했을 때, 내가 원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속에 경전이 아닌 부분도 있어서 그걸 제외하니깐 150책 정도밖에 안됐어요.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금년(98년)에 고려대장경 경률론 부분의 번역이 끝나고, 명년 5·6월경에 책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이제 목록 부분과 어휘사전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것은 약 21책 정도가 내년에 번역되어 나올 예정입니다. 그러면 일차적으로 한글 대장경 역경이 완료되는 것이죠.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라 참으로 난제가 많습니다. 국가와 종단이 어려운 상태라 홀로

동분서주하면서 화주를 하나, 아직도 역경의 중요성만을 이야기하지 실천으로 도움을 주시는 뜻 있는 분들은 드문 형편입니다.

질문 : 역경할 때 생기기 쉬운 오류와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시죠.

답 : 현재 역경하는 스님들 중에는 대강 판단해서 번역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언어감각 및 단어선택에 민감하지 못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역경 연찬회를 만들어서 역경할 때 서로 묻고 토론해서 오역을 줄이고 있습니다. 역경을 하려면 경전도 많이 알아야 하고, 제반 주변지식도 있어야 하지만, 경전의 본의를 크게 넘지 않는 한도에서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가기능도 있어야 해요. 즉 글 만드는 능력도 있어야 해요. 실력이 없으면서 글만 잘 만들어도 문제가 있지만, 실력이 있으면서 글을 잘 표현 못해도 공허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역경을 하면서 느낀 어려운 점은 종단차원에서 역경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역경원이 발족되고 첫해에 종단에서 800만원을 지원하여 아함부 1권이 나온 후에는 지원이 거의 없다가 개혁 종단이 들어서고 이제 조금씩 지원이 되나 아직도 종단사업이라곤 할 수 없지요.

현재 번역을 하게 되면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는데 역경하는 분들의 활동비용은 차치하고 책값으로도 부족합니다. 그것도 책이 나오고 한참 지난 뒤에야 원고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면, 그 밖에 역경에 필요한 자금문제는 말해 뭐하겠어요. 우리 종단의 성전을 만드는 것인데 지원이 없다는 것은 정말 종단의 슬픈 일이지요. 다른 종교를 봐요! 자기네 성전 만드는 것을 무엇보다 우선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역경사업이

거스를 역자를 쓰고 지경 경자를 써서 逆境事業이죠. 그야말로 역경은 역경에 처한 사람들이 하는 일이죠. -웃음(?)-

질문 : 지금까지 선위주의 수행풍토로 인해서 교학이 많이 경시되었다고 봅니다.

불교에 있어서 교학의 중요성과 역경과 교학에 뜻을 둔 후학들이 가져야 할 마음자세를 말씀해 주십시오.

답 : 옛날 선사들이 경을 보지 말라 했던 것은 교학을 무시한 것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나라는 잘못 알고 있는데 참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공부가 궤도에 들어갔으면 기웃기웃하지 말고 부처님의 근원적인 심지를 파악해라 하는 것이거든[捨教入禪]. 그런데 교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본 궤도까지 가는데 필요한 교량역할을 하는 것이다. 교학을 다루게 되면 경뿐만 아니라 역사·의식·주변지식 등도 다루게 되는데, 지금 종교의 역할을 다하려면 교학을 충실히 해야 사람의 근기에 따라 방편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교화하는 것과 자신을 제어하는 지혜도 생기지 않아요. 지금 스님이라고 하면서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무당처럼 살고 있는 경우가 허다해.

한 예로 얼마전 어떤 노보살이 군 장교인 사위를 데리고 나를 찾아 왔었어요. 그 노보살이 사위에게 자꾸 절에 다니라 하니깐, 그 사위가 “요즘 종교도 많아서 빌어줄 곳이 허다한데, 왜 하필이면 절에만 가야하나?” 하고 장모에게 물었대요. 그래 그 장모가 그 이유를 알려 주려고 이절저절 찾아다니면서 불교에 대해서 스님들에게 물었대요. 그런데 명쾌한 답이 없더라고. 한마디로 중구난방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출가 하게 된 이유와 확실한 명분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 스님네들이 더욱 그러는 것 같은

데, 출가자가 돼 가지고 목적과 명분을 못 찾고 살면 그건 예수교나 무당이에요. 그저 명리나 쫓아 돌아다니는 거지 뭐!

“생사를 해탈하고 부모와 중생을 구제한다.”고 앵무새처럼 떠들어대지만, 그건 기독교들이 우리를 소위 극단적 주관유심주의적인 관념철학에 젖어있는 환상의 집단이라고 공격하는 이유 중의 하나야. 다들 거기에 대해서 꼼짝 못해요. 반박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출가한 보람이 있겠어요. 그래서 교학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이미 출가한 사람은 그 순간 ‘나는 선택을 함부로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인식하에 수행자로서 자기의 인품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교학은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불조의 해명을 잇고 생사해탈하면, 수행자로서 그 본말을 다 한거죠. 교학하는 사람은 그저 이말 저말 인용이나 해서 글 좀 쓰고, 법문 좀 하면서 그러저럭 일생을 보내서는 안되고, 정말 시대적 사명을 갖고 한 생명 걸고 심도있게 공부해야 돼요.

거기에다 청정한 생활을 하면서 경을 보고도 견성 성불할 수 있다는 굳은 신념을 가져야 돼요.

옛날 많은 스님들이 경을 보고 성불했는데 원효스님도 경보러 가다가 깨쳤고, 보조국사도 화엄경과 대혜어록을 보다가 깨쳤고, 송나라 장수자선(長水子璿) 스님도 능엄경 구절을 묻다가 깨달았거든!

질문 : 강원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하고 계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답 : 강원에서 어느 정도 기본과정을 거친 후에 역경에 관심있는 학인은 한문실력을, 강사에 관심있는 학인은 교리·이론을, 포교에 관심있는 학인은 실천이론 및 의식등을 분야별로 공부할 수 있도록 강원교육을 전문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 강원교과목에 대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있는데, 강원교

과목에 석가여래행적송을 꼭 넣어야 한다고 4-5년 전부터 제방 강원 강사스님에게 책자를 보내면서 주장했어요. 학인들은 교리·역사·의식·실천 등을 균등하게 공부해야 돼요. 다행스럽게 그런 부분이 이 책에 많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걸 충분히 익히고 경을 보게 해야 경 보는 데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질문 : 강원에서 소리간경을 강조하는데 그 효과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 소리내서 간경을 하면 체력이 소진되는 점이 있고, 글을 깊이 보는 데는 묵언간경이 좋지만, 소리내서 읽으면 수마에 꼬달리지 않고, 글이 몸과 입에 붙어서 문리를 트이게 하는 데에 도움되는 점이 많기 때문에 학인들에게는 좋다고 봐요. 가능하면 읽으면서 바로 해석을 해나가는 것이 좋아요.

질문 : 승보의 의미를 말씀해 주시죠.

답 : 승보는 존경스런 것인데....

‘승천불천 (僧賤佛賤:승려가 천하면 부처도 천해진다)이 되는 거야. 스님들 상호간에 존경과 신뢰가 없으면, 누워서 침뱉기 식으로 똑같이 폄하되는 거예요. 어느 시대 어느 무리에나 망나니들은 있는 거야.

부처님 당시에 제바달다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공자님 당시에 도척(盜跖)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 그렇다고 그런 인물들을 싹 잡아죽일 수도 없는 것이고,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거든. 다만 그렇지 않은 생각있는 무리들이 청정하게 열심히 공부하면, 불교는 한층 신뢰를 회복하고 승풍을 진작시킬 수 있어요.

옛날 신라나 고려 때에는 유교가 힘이 없었는데, 안향(安珦)이라는 유학자가 가을 어느날 향교(鄕校:

공자를 모신 사당과 부속으로 유학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이 있는곳)에 갔다가 읊은 유감(有感)시가 있어.

香燈處處皆祈佛, 絲管家家競祀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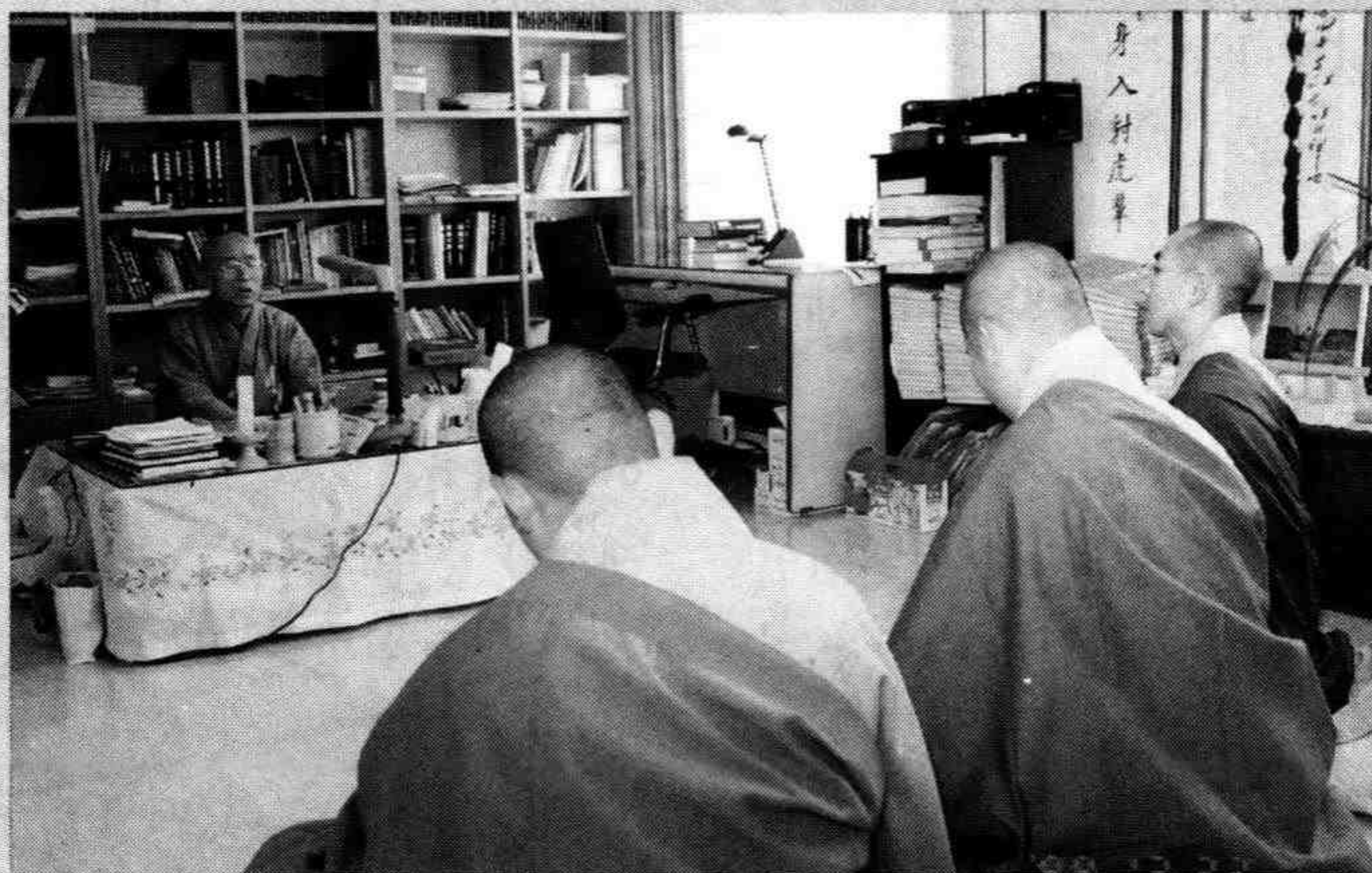
唯有數間夫子廟, 滿庭秋草寂無人.

(향과 등은 곳곳마다 모두가 부처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음악 소리는 집집마다 다투어 신에게 제사하는 것인데, 오직 몇 칸의 우리 공자님 사당만은 뜨락 가득 가을 풀 적막하여 인적없네!)

이 시를 발표하자 유생들이 그걸 보고, “안되겠다. 우리 유생들은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하고 분발해서 그 문하에 정도전 등이 나와 그 때부터 유교의 힘이 커져 판도가 바뀐 거예요. 이런 선례가 있으므로 우리 승가는 정말 정신차려야 합니다. 출가한 초학자를 열심히 공부시키는 것도 좋지만, 출가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조건하에서 출가자를 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가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질문 : 후학들에게 부탁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것이지요?

답 : 우리는 이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로서 전시대에 닦아놓은 것을 더 이상 망가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젊은 후학들은, 모든 수행의 시작이자, 定과 慧를 나아가는 길이며, 해탈의 근본이 되는 계율을 철저히 지켜야 되겠습니다. 또한 세속의 명리를 버리고, 생사를 해탈하여, 만 중생을 제도하려고 한 본분을 잊지 말고 매사에 자신을 꼼꼼이 챙겨야 되겠습니다. 부디 생은 짧으니 그저 능력 닿는 대로 원하는 분야에 촌음을 아껴 공부하고 공부해서 불법의 대의를 널리 펼 것을 당부하고 싶습니다.





## 번영하는 길

부처님께서 왕사성 기사굴에 천 이백 오십 명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였다.

어느 날 마가다국의 아사세왕은 작은 나라로서 대국에 순종하지 않는 발지국을 치고자 했다. 왕은 대신인 우사를 시켜 부처님께 그 뜻을 여쭙었다.

그 때 부처님께서 발지국 사람들이 자주 모여 정의를 토론하고, 임금과 신하가 서로 순종하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서로 공경하며, 법을 받들어 금할 것을 금하고 예절을 어기지 않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조상의 종묘를 공경하고 제사를 잘 지내며, 여인들이 정숙하여 음란하지 않고, 사문들을 높이 공경하고 보호하며 공양하기를 힘쓰는 것으로 보아 비록 작은 나라지만 국력이 튼튼할 것이므로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다.

우사가 돌아가자 부처님께서 대중을 강당에 모이게 하고, 교단의 발전과 화합을 위해 일곱 가지 법을 말씀하셨다.

“첫째 서로 자주 모여 정의를 강론하라.

둘째 상하가 하나로 화합하여 공경하고 뜻을 어기지 말라.

셋째 법을 받들고 금할 것을 금하여 제도를 어기지 말라.

넷째 스승을 받들어 섬겨라.

다섯째 마음을 닦되 효도와 공경을 우선으로 하라.

여섯째 계행을 닦아 욕심과 감정에 치우치지 말라.

일곱째 남을 먼저 생각하고 자기를 뒤로 하며 명예와 이익을 탐내지 말라.

그리하면 법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니라.”



장아함경 제2: 유행경

## 생활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자

도빈(道彬) / 사집

우리들은 대부분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능동적인 삶을 망각하고 일상생활에 이끌려 살아간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 싸여 있는 산사(山寺)에서 수행에 전념하는 우리들도 새벽예불에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빈틈없이 꼭 짜여진 일정표에 맞추어 날마다 똑같은 생활을 반복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활 속에 폭 젖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다면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을 어떻게 활기차게 할 것인가?

그것은 언제나 편해지려고만 하는 자신과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한다.

흔히 일체유심조(一切有心造)란 말을 많이 한다.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려 있다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일체유신조(一切有身造)라고 주장하고 싶다.

수행의 경지가 깊지 못한 대부분의 우리 초심자들은 마음먹은 대로 몸을 자유자재로 움직이기보다는 육신이 하고자 하는 대로 마음이 따라가 버린다, 몸이 원하는 대로 조금 더 자고, 먹고, 쉬어주면 우리의 육신이 강해져야 하는데, 반대로 약간의 통제를 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여 주었을 때 조금씩 힘이 축적되는 것이다.

새벽 3시에 도량석 소리가 나면 몇분 더 눕고 싶지만 벌떡 일어나 바로 법당으로 향하여 108참회를 하는 습관이 쌓여 가고, 아직은 끊어지지 않아서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일체의 세속적인 생각들과 주변에

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 관심이 쏠리는 마음들을 쉬고 오직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간절한 말씀에 온 신경을 쏟아부어 간경(看經)의 힘을 길러 나간다. 아울러 예불, 공양, 간경시간 사이사이의 자투리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 지대방에서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법당으로 향하여 숙세부터 쌓아온 업식을 절을 하면서 하나씩 녹여간다면 하루하루가 헛된 시간만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꾸준히 하면 한 해, 두 해, 해가 지나서 강원을 졸업할 때쯤이 되면, 평생을 수행하는 데 튼튼한 기반이 되지 않겠는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열심히 수행하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사족을 붙여 본다.

활을 쏘아 과녁을 잘 맞히는 사람은  
그만큼 노력한 것이니  
누구라도 잊지 않고 노력하면  
과녁을 잘 맞힐 수 있다.  
도를 빨리 얻지 못한다고  
한탄하거나 물려서지 말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반드시 도를 얻을 수 있느니라.

(『아함경』 「불반니항경」 중에서)



# 념제결사

념제(念齊) / 치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꽤 쌀쌀해졌다. 어수선한 날씨 때문인지 마음도 어수선해지는 것 같다. 매일 쳇바퀴 돌 듯 일상생활들 속에 아무 의미없이 그냥 그렇게 시간만 보내는 것 같아 마음이 짐짓 무거워진다.

매일 보는 얼굴들, 매일 보는 건물들, 매일 같은 풍경들이 무거워진 마음에 한층 더 무게를 얹어 놓는다. 나의 도반 스님 한 분은 말수도 적어지고 행동도 뚱해져 있는 나를 보곤 뒤늦게 가을 탄다고 놀려대기도 한다. 그렇게 기다려지던 공양시간도 이제 별 흥미가 없는 걸 보면 걸려도 뭔가 단단히 걸린 모양이다.

강원에 들어온 지 벌써 일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갔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게으름이나 피우고, 남 험담하고, 스님이랍시고 거들먹거리거나 하는 것으로, 수행자로서의 품위와 행동과 자비스러운 마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흔적도 없는 듯하다. 처음 발심하여 출가하던 때의 그 굳고 끈은 마음들이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욕심 많고 게으름만 피우고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모습만 남아 있는 나를 발견할 때 소스라치게 놀라기도 한다. 초발심때의 맑고 끈고 굳은 신념들을 잡으려 해도 잡히는 것은 욕심쟁이뿐이니 그저 눈물만 앞을 가린다. '한 분 스님이 되면 구족이 천상에 태어난다'하였거늘, 이대로 행동하다가 구족이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심히 염려스러워진다.

고려 때 보조스님께서서는 문란하고 도탄에 빠진 불교를 혁신하기 위해 정혜결사를 시행하여 대중에게서 멀어져 가는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 내 비록 보조스님처럼 거국적인 결사는 못할지라도 도탄

에 빠진 이 한 몸 구원하기 위해 결사를 벌려야 하지 않을까! 내키지 않은 일도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보기도 하고, 누가 뭐라 해도 한 번 쓰옥 웃는 것으로 끝내기도 하고, 이제껏 미뤄왔던 일들을 몽땅 처리해 버리기도 하고, 그저 그렇게 지내던 도반스님에게 친한 척도 해보고, 예불시간마다 목소리 높여 크게 염불도 해보기도 하였다.

이렇게 가끔씩은 나를 다독거리려 다시 일어나려고도 하지만 작심삼일이라 했던가. 얼마 후면 언제나처럼 욕심쟁이 중이 되어 있을 뿐이다. 가히 땅을 치고 통탄할 만하다. 아직 사미인 내가 벌써부터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게 우습기도 하고, 앞으로 어려운 경계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인데 처음 시작하는 강원 생활부터 원활히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나의 모습이 초라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 움츠리고 있기에는 대중생활이 주는 장점이 크다. 예불, 간경 등 신심나는 활동과 특히 다른 스님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니 힘이 불끈 솟는 것 같다. 모두들 웃음 속에 사는 모습을 볼 때 부처를 밖에서 찾지 말라는 옛 조사스님의 말을 새삼 깨닫게 되면서, 이제껏 무엇을 찾아 헤매고, 좌절하고, 기뻐하였는지 다시 한 번 되짚어 본다.

얼마나 같지 모르지만 다시 한 번 이 한 몸 구원키 위해 결사를 시작하려 한다. 작은 일 하나에서부터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온 세상을 구하는 원대한 꿈도 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러기 위해 이제부터 하심하고 나 자신보다는 우리 모두를 위해 다시 한 번 일어서야 겠다.

## 전화위복

정산(定山) / 사집

요즘 나는 매우 우울하고 화가 난다. 그리고 부끄럽다. 그 이유는 다 알다시피 서울 조계사에서 일어나는 스님들의 폭력이 계속 마스크를 통해서 보여지기 때문이다. 승가는 비폭력주의가 아니던가? 속인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스님들이 세속에서나 하는 행위를 배워 따라하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한심하고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일로 인해서 대국민적으로 스님들의 이미지가 수행자가 아닌 이권(利權)을 위한 깡패 집단으로 인식될까 우려된다. 지금 어느 사찰 스님이나 마찬가지로 우리 송광사 강원 스님의 경험으로는 시내에 나가면 만나는 사람마다 ‘스님들 왜 싸워요?’, ‘중놈들!’ 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한다.

나도 또한 경험이 있다. 겨울 어린이 수련 법회를 준비하면서 초등학교 게시판에 공고문을 붙이기 위해 근교 초등학교 세 곳의 교장 선생님을 뵈었는데 모두 하시는 말씀들이 그것이었다. 심하게는 “스님들은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하시는 분들이신데 어떻게 속인 마냥 싸움박질하느냐”고 질책을 했다. 나는 나름대로 변명을 했지만 그 때의 수치심이란 출가해서 처음이었다. 지금까지 부처님과 세상의 진리인 불법과 청정하게 수행을 잘 하고 있는 스님들은 나로 하여금 출가한 것을 자랑스럽게 했는데, 이번 일로 인하여 나와 모든 스님들을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 시점을 계기로 승보에 속한 나 또한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나 또한 승려로서 그리 여법(如法)하게 살아오지 못했다. 핑계라고 하면 출가한 지 얼마 안되어 승가의 습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일까? 그래서, 이제 다시 출가 의미를 되새겨 보고 승려로서 사부 대중의 모범이 되고자 한다.

내가 출가한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 가장 큰 목적은 착하게 살고 싶어서였다. 물론 사회 생활 하면서도 착하게 살 수 있지만, 출가하는 것이 더 빠르고 잘 할 수 있기 때문에 출가하게 되었다. 그런데, 출가 후 대중생활을 익히고 따라가는데 급급하여 출가 의미를 잠시 망각하고 타성(他聲)에 젖어가고 있었다. 이번 조계사 사태로 출가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니 나로서는 전화위복(轉禍爲福)이 되는 것 같다.

지난 여름에 서울 동대에서 전국 강원 스님들이 모여 ‘21C 승가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했었다. 그 때 당시 세미나의 결론은 ‘철저한 계율 정신의 확립과 준수’였다. 현재 우리 나라 승가의 문제점은 나태한 계율 정신이다.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보면 ‘난행(難行)을 능행(能行)하면 존중(尊重)여불(如佛)이니라.’라는 구절이 있다. ‘하기 어려운 행을 능히 행하면 부처님과 같이 존중한다.’라는 말이다. 여기서 난행은 바로 계율과 위의 있는 행동이다. 세속인들이 교리에 대하여 스님보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도 있지만, 거기에 따르는 행이 부족하다. 그래서, 스님들이 더욱 훌륭해 보이는 것인데, 계율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찌 떳떳하게 공양을 받을 수 있겠는가? 물론 법력이 있어서 계율에 걸림없이 사셨던 스님들도 계셨다. 중요한 건 그런 분들을 흉내 내는 스님들이 문제다. 법력도 없으면서 갖가지 말로써 핑계대고 막행막식하는 스님들이 큰 문제이다. 이제는 자각하여 세속인으로부터 싫은 소리 듣지 말고, 정진 잘 하시는 스님들까지 욕 먹이지 않도록 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계율을 어기어 내 몸이 편해지는 것보다 계율을 지켜 내 마음 편해지는 것이 수행하는 스님들의 올바른 마음 가짐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앞으로는 재가 신도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재가 신도로서 스님들께 맛있는 음식, 좋은 옷 등을 보시하는 것만이 최고가 아니다. 재가 신도들은 스님들이 공부하는 데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 깊이 생각해서 보시행을 해야 하고, 스님들이 공부를 잘 하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여 스님들이 여법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대만의 경우, 스님들이 시내에서 음식을 사먹을 때 식당에서 파는 음식 속에 스님들이 먹어서는 안 될 내용물이 들었으면 절대 팔지 않는다. 심지어 빵을 만들 때 계란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빵을 팔지 않는다. 그리고 스님들 전용식당이 있어서 스님들에게 배려를 하고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안되더라도 스님들을 생각해서 최소한의 배려가 있었으면 한다. 우리 나라의 불교 정화 불사는 스님과 신도 그리고 정부와 국민 모두가 동참하여 올바른 승가상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스님은 올바른 계율을 바탕으로 수행에 힘쓰고 대중 포교를 해야하며, 신도는 스님을 뒷바라지하고 수행을 잘 못할 때는 질책할 수도 있어야 하며, 정부는 문화재 관리와 사찰 자연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국민은 수행자로서의 스님들을 잘 지켜봐 줘야 할 것이다. 이번 법난의 큰 잘못은 승가이지만 도의적으로는 우리 나라 모두의 잘못이 아닌가 생각한다. 우리 모두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할 것이다[回光反照]. 나 또한 여법한 승려로서 자질을 구비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여 수행할 것을 서원합니다.

## 겨울날의 소고

연일(然一) / 치문

쌀쌀한 바람이 정혜사[큰방]를 나서서 나의 옷깃을 여미게 한다.

행하니 걸림이 없는 머리를 방어하기(?) 바쁜 스님네 모습들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다.

부처님 앞에서 삼사칠증(三師七證) 스님들을 모시고 삭발염의(削髮染依)를 한 지도 8개월이 되어 가고 있다.

행자시절 강원스님들을 보면 마냥 부럽기만 했었는데, 이제 줄지어 안행(雁行)하는 행자(行者)님들을 보면, 예전의 내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미소가 나온다.

영산전, 약사전, 지장전, 승보전, 효봉영각, 관음전을 거쳐 보조스님 사리탑에 참배를 하고, 오늘도 멀리 시선을 모후산에 맞춘다. 붉게 물든 저녁놀을 보며 하루를 가만히 반조(返照)해 본다. 오늘도 바쁜 일과 속에 나를 잊고 살았다는 자책이 마음을 아프게 한다. 옛 선사는 하루가 헛되이 감을 주저앉아 목놓아 통곡을 했다고 하는데, 과연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불법을 구하며 살고 있는가?” 스스로의 물음에 떨군 고개를 쉽게 들 수가 없다. 부끄럽다. 천복(天福)을 타고 나 인천(人天)의 스승이 되는 자리에서 있지만 쌀 한톨이라도 시은(施恩)에 보답하며 살고 있지 못한 것 같다. 삼시 세 때 예불만 드려도 마지밥은 내려먹는다고 하지만 멍하니 부처님과 대하는 시간들이 얼마만큼이

나 많던가?

청바지 차림에 초발심자경문 한 권을 들고 조계산을 넘어 송광사에 입산하던 모습이 아직도 뇌리에 선다. 대학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했고, 이런저런 반연(攀緣)들을 끊고 입산할 때가 11월 8일이 었다. 졸업이나 하고 가라는 칠순노모의 눈물 젖은 만류도 끝내 외면하고, 하루라도 빨리 출가하여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입산했다.

내가 출가를 생각한 것은 어렴풋이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어렸을 때부터 애늬은이라고 할 만큼 깊은 생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았다. 5남 3녀의 대가족 속에서 막내로 태어났기에, 항상 북적북적하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많았던 때문일 것이다.

살아가는 주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며 왠지 확일적이라는 생각을 하곤 했다. 우리네 삶은 태어나서 학교에 가고, 직장 다니고, 배우자를 만나서 가정을 꾸리고 유지하다가 한 생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마치는 것이 대부분의 삶이라 할 수 있다. 웬지 나도 세간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싫었다. 무언가 나의 의문과 갈증을 해소시켜 줄 중요하고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찾은 길이 출가사문의 길이었다. 모든 것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과 소박함, 그리고 번뇌

를 떠나 생사해탈을 할 수 있는 엄청난 매력에 휩싸였었다. 그런데 삭발염의하고 일 년도 안 되는 이 시점에서 나는 혼란스럽다.

그때의 신심은 많이 약해지고, 지금의 모습은 나약하기만 하다. 대중 속에서 대중의 힘을 빌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속에 안주해 버린 나는 더 이상의 구도자가 아니다. 무언가 새로운 전환이 필요하다.

요즘 우리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定慧結社)의 정신을 오늘의 시끄러운 상황 속에 되살려 바른 수행풍토를 이루기 위하여 결사문을 재정비하고, 희박해져 가는 지계(持戒)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범망경(梵網經) 독송을 하는 등 안으로 내실을 충실히 다지고 있다. 나도 보조스님처럼 결사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힘이 든다. 나를 끝없이 비워 나간다는 것이...

동안거 들어 밀린 치문(緇門) 공부한다고 다들 잠든 삼경 이후에 지장전에서 해오던 절도 그만두었다. 도서관에서 운력(運力)에 지쳐 졸고 있는 나의 모습에 도반스님의 질책이 따갑기만하다.

방향을 잃고 표류하는 모습을 이제는 다시 추스려야 한다.

인신난득(人身難得)이요, 불법난봉(不法難逢)이라고 했다. 사람 몸 받기 힘들고 불법 만나기 힘들다고 했으니, 이생에 마치지 못하면 또 어느 생을 기약해야 할는지 모른다.

새로이 마음을 굳게 먹고 공부를 시작해야 겠다.

아스라이 저녁놀은 저 가고 보조탑을 내려오는 계단 하나하나 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여 본다.

## 간경(看經)

광화(光化) / 치문

출가하여 은사스님 시봉하고 있을 때 누누히 들었던 강당 생활의 중요성 때문인지, 아니면 출가 사찰 이외에 다른 곳에서 생활해 보지 못한 어색함 때문인지 강원에 입방을 드리러 오던 길은 사뭇 긴장과 설레임이 함께 하는 시간이었다. 남도의 아득한 땅 송광사에서 시작된 학인의 삶은 새로운 것에 대한 적응과 대중생활속에서 새로운 저를 발견할 수 있는 나날이었다.

강당에서 행하는 일들을 살펴 본다면 예불, 공양, 운력, 간경, 염불 등을 매일 매일 행함으로써 승가의 행을 몸에 체득함과 함께 계, 정, 혜 삼학으로 나아가는 기초를 닦는 곳이다. 특히 그 가운데 간경은 한글 세대인 우리들에게 경전에 나오는 한자의 속뜻을 이해하는 데 좋은 방안이며, 부처님과 옛 큰스님의 말씀을 반조해 나아감으로써 삼매를 체험할 수 있는 수행방법이다. 간경에 대한 인식이 이렇다 보니 강주스님을 비롯해서 강사스님, 대교반 스님들에게서 간경을 많이 하라는 권고의 말씀(‘강당생활 4년에 남는 것은 간경한 것 뿐이다.’)을 수없이 들었다. 그런 연유로 강당 생활에 있어 수행방법으로 간경을 택해서 치문반 생활을 보내기로 작정했다.

나름대로 간경의 4대 원칙을 만들었는데

1. 다량(多量) 간경이요.
2. 고성(高聲)으로 할 것이요.
3. 정확한 발음으로 할 것이요.
4. 나의 간경소리를 듣고 못 중생들이 환희의 눈물을 흘리도록 할 것이다.

이 4대원칙을 고수하면서 “夫業繫受身은 未免形累라. 稟父母之遺體하여 假衆緣而共成이로다....”

송광사의 큰방은 정혜사라고 하는데 가로가 열 칸 세로가 두 칸의 장방형으로 약 80평의 규모이다. 이 방에서 등을 벽쪽으로 하고 두 줄로 서로 바라보며 공부

하고 간경을 한다. 간경에는 유성(有聲)간경과 무성(無聲)간경이 있는데 송광사에서는 유성간경을 권장한다. 유성간경을 함으로써 향상 발전 도모되는 것을 본다면 경에 몰입하기가 쉽고, 소리를 내기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 되고, 스님으로서의 기본인 염불을 하는데 있어 목청을 띄우고 다듬고 가꾸는 작업으로 간경은 빼놓을 수 없는 공부일 것이다. 무엇보다도 자타의 교감인 연기(緣起)의 실상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 소중하다.

나의 간경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여기 오기 전에 간경을 배운 적이 있습니까?”

“간경소리 참 듣기 좋데이. 나도 그런 간경 언제나 해볼꺼이.”

“참 듣기 좋다. 죄송합니다. 스님 제가 스님에게 환희의 번뇌를 일으키게 해드려서요”

“禮佛者는 敬佛之德也요. 念佛者는 感佛之恩也요. 看經者는 明佛之理也요....”

나의 간경에 대한 찬탄 내지 동경의 소리를 듣고 힘을 얻어 더욱 간경에 힘을 쏟기로 했음은 물론이다.

하안거에 들어간 지 한 달쯤 지난 어느날 이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희심의 미소를 짓고 있는 나를 발견한 것이다. 어릴 적부터 문장에 대한 해석 및 인지도가 부족한 점을 안타깝게 여겨 왔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놀랍게도 문장의 뜻이 보이고, 글자가 똑똑히 보이고, 문장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었다. 더욱이 빠른 속도로 읽으면서도 한 글자도 빠짐없이 눈에 들어오는 것을 체험하고는 간경에 대한 믿음이 한층 더 깊어졌다.

“夫看經之法은 後學이 須知니 當淨三業이니라...”

견성(見性)을 함에 간경(看經)이 훌륭한 방안이라. 어제도 간경을 했고, 오늘도 하며, 내일도 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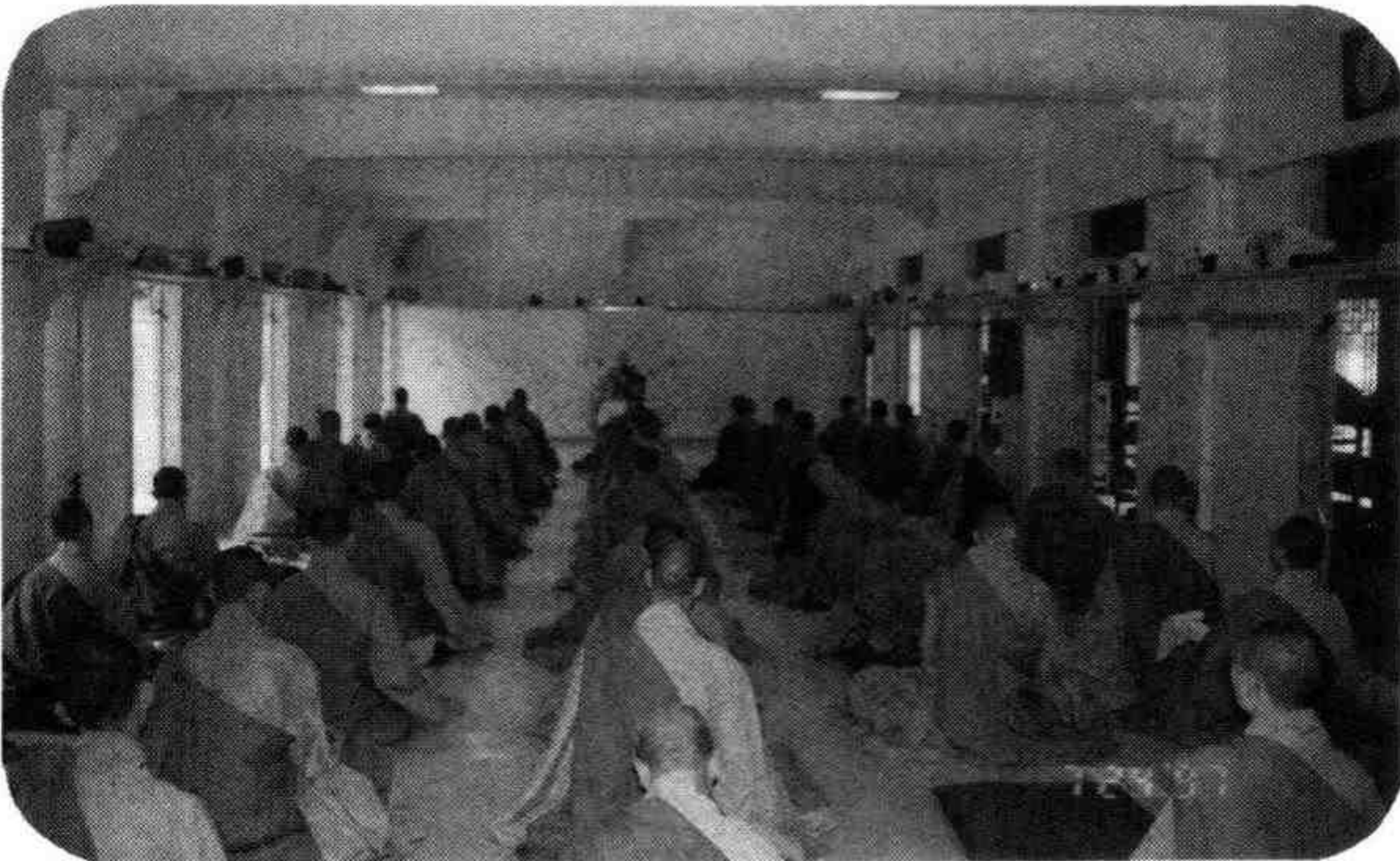
##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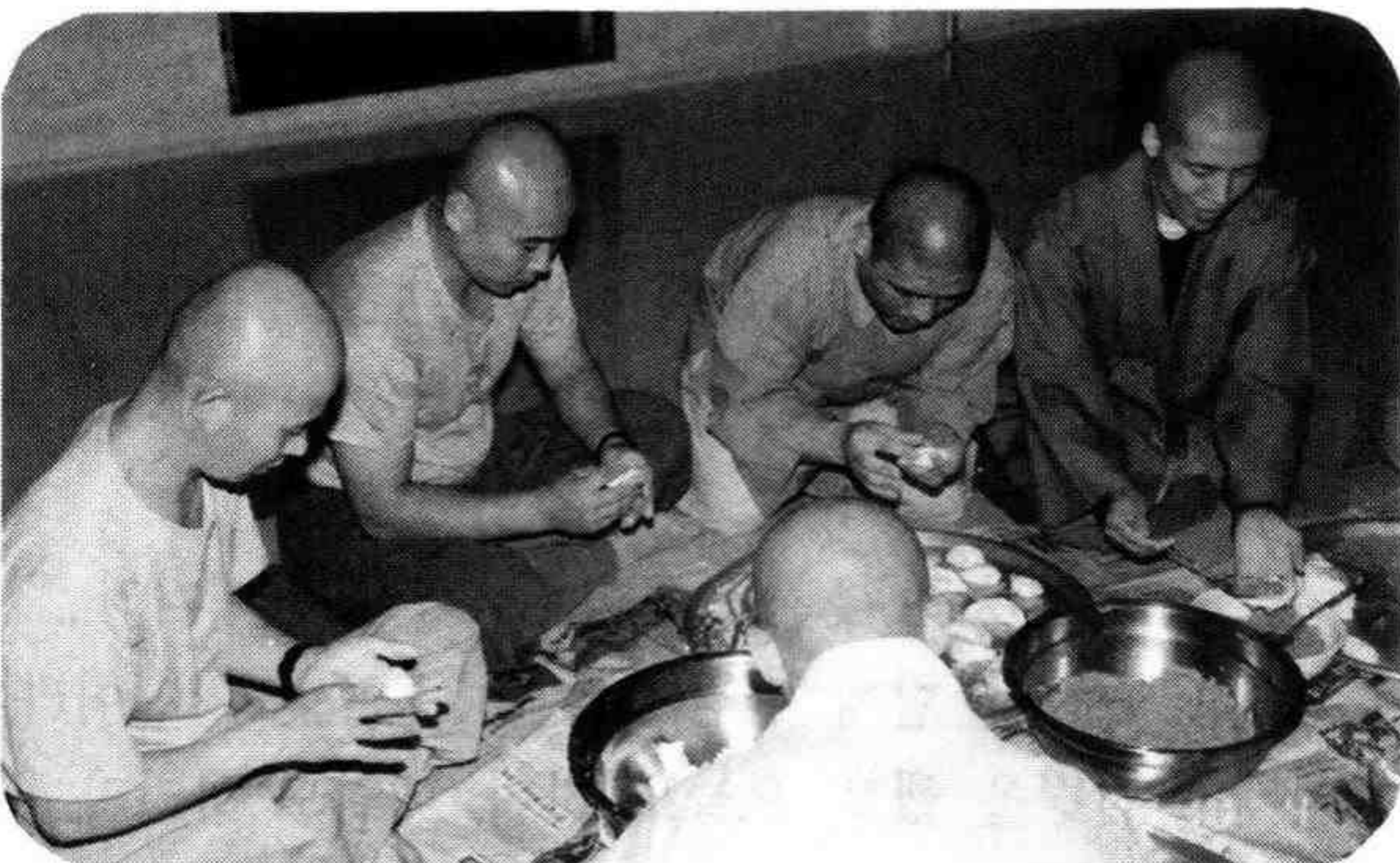
### 9월 17일 대만 스님 송광사 방문

대만스님 30여명이 송광사를 방문하여 양국의 불교 현황과 수행에 대하여 평온한 분위기 속에서 담론하였습니다.



### 9월 28일 ~ 10월 31일 중국어 특강

대만의 윤욱스님께 중국어 특강을 받았습니다. 유창한 한국말과 유머감각으로 중국어뿐만 아니라 대만 불교의 주변지식도 익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 10월 4일 한가위 송편 빚기

큰방에서 한가위 송편을 빚었습니다. 특히 중국 중지스님은 주먹만한 만두를 빚어 폭소를 자아냈습니다. 혹시 내 발우에 담긴다면....



10월 4일 ~ 14일 기공 특강

중국에서 다년간 기공을 수련한 이봉레 보살님이 실습 및 이론을 강의하였습니다. 자신의 기공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에 귀의하여 불법공부를 한다는 말에 가슴 뭉클하였습니다.



10월 21일 효봉대선사 추모식

한국근대불교사의 거봉이신 효봉 대종사의 추모식이 700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효봉장학회의 장학금이 선원·율원·강원에 소속된 스님에게 전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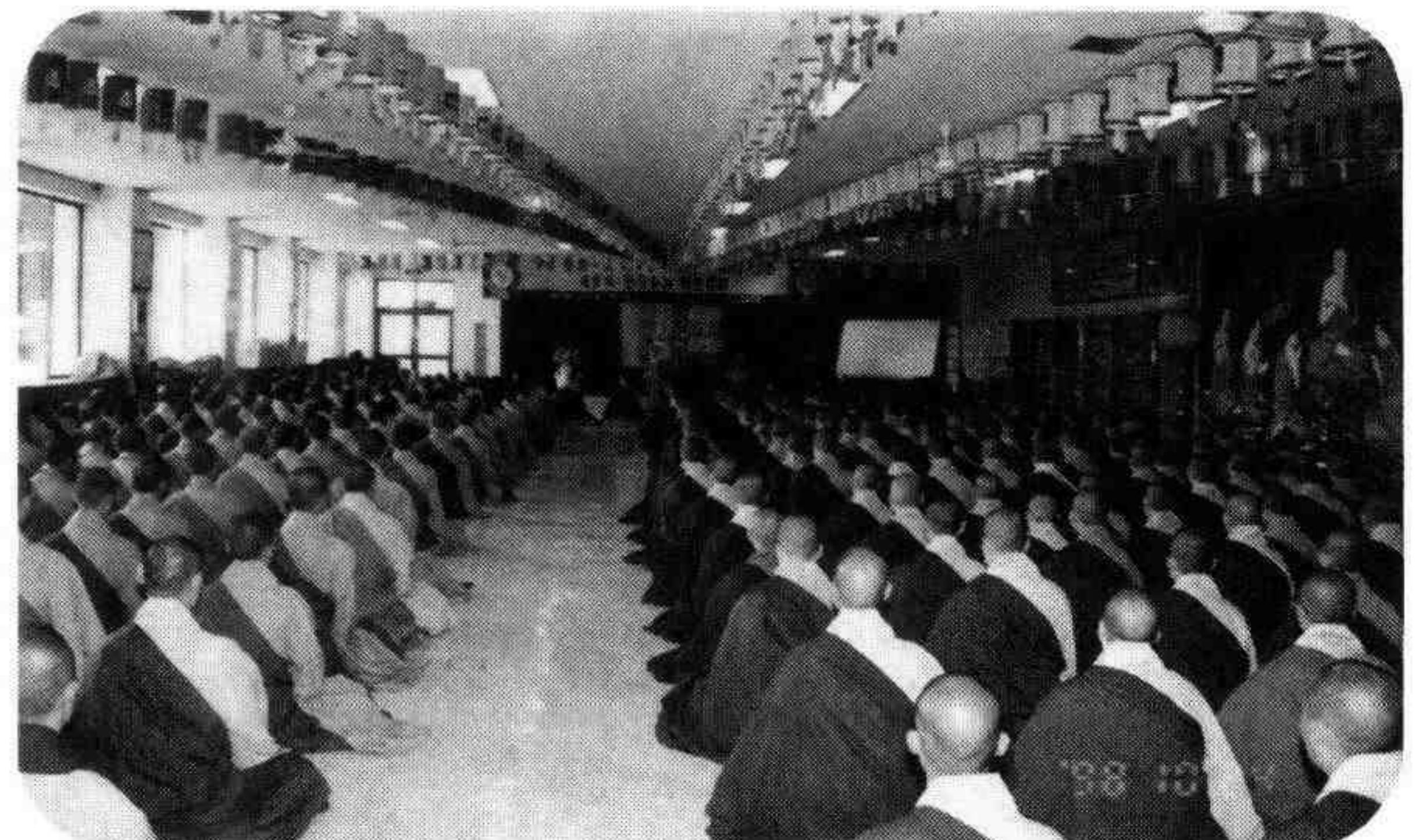
10월 22일 가을 소풍

넓게 펼쳐진 남해안을 따라 통영 미래사·용화사·고흥 문수암으로 가을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미래사 근처의 구산 대종사께서 수행하셨던 토굴이 인상깊었습니다.



10월 24일 ~ 25일 강원연합 학인대회

전국강원연합회 소속 스님들의 장기자랑과 학술토론회 및 각 강원간의 친선 운동경기 등으로 1박 2일간 학인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일 년에 한 번씩 각 강원간의 교류와 정보교환 등 공감대 형성의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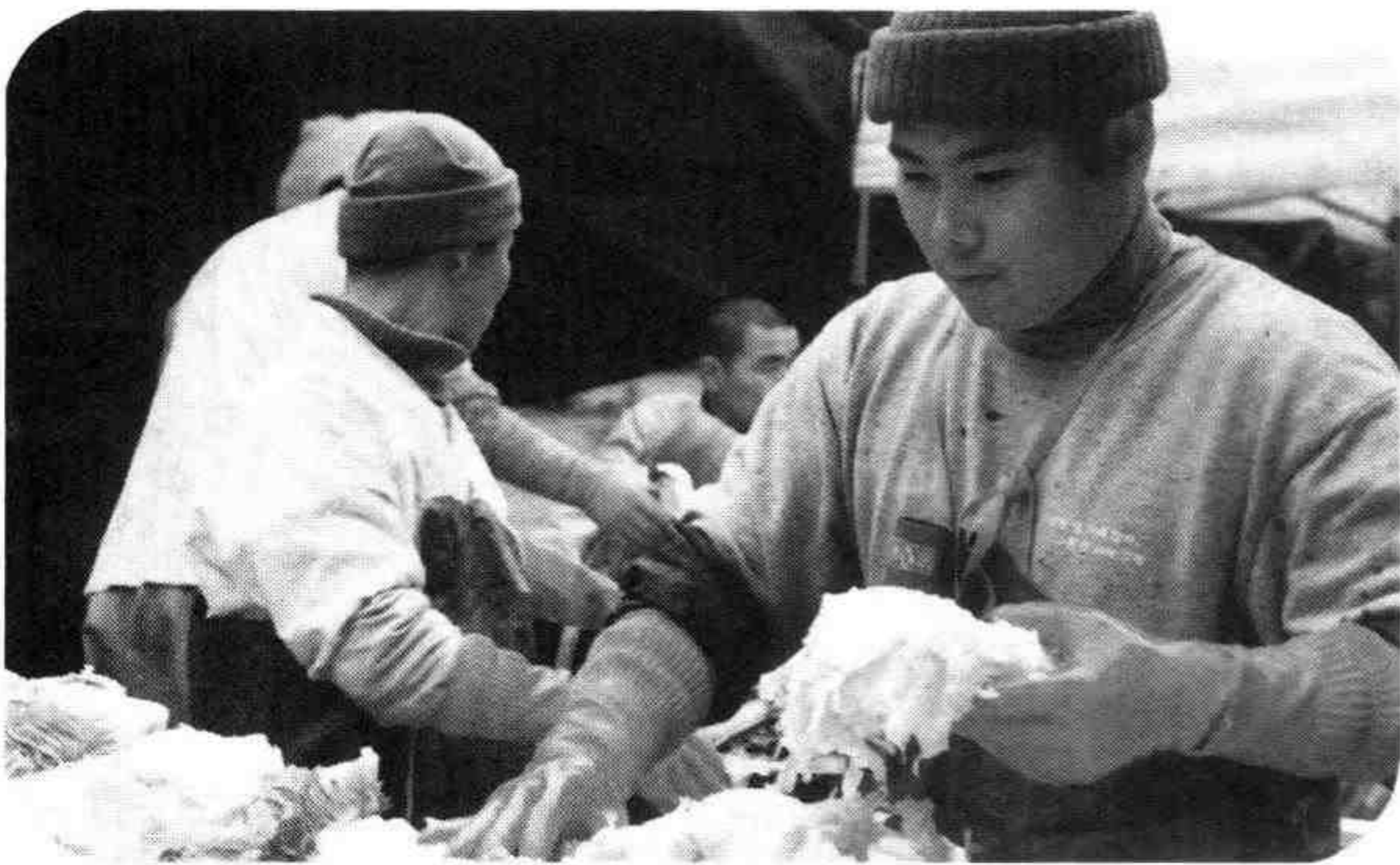
### 8월 7일 ~ 21일 중국방문

방장스님과 강주스님, 강사스님, 대교반 스님과 통도사 강주스님 등이 중국소재 우리 나라 스님들의 행적이 있는 사찰을 중심으로 학술조사와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11월 8일 ~ 15일 대만 불광사 방문

대만 최대의 사찰인 불광사에 방장스님을 모시고 강주스님·진옥스님·강원 대교반 스님이 방문,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이번 자매결연 체결로 1년에 한번씩 정기적인 상호 방문을 통한 양국불교의 교류는 물론 강원 졸업후 상호 유학문제 등 많은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11월 30일 김장운력

올 동안거의 든든한 반찬이 될 김장을 밭에서 재배한 2,000여 포기의 배추로 담겼습니다. 매년 있는 행사이지만 이번에도 불교방송·KBS의 취재 열기가 대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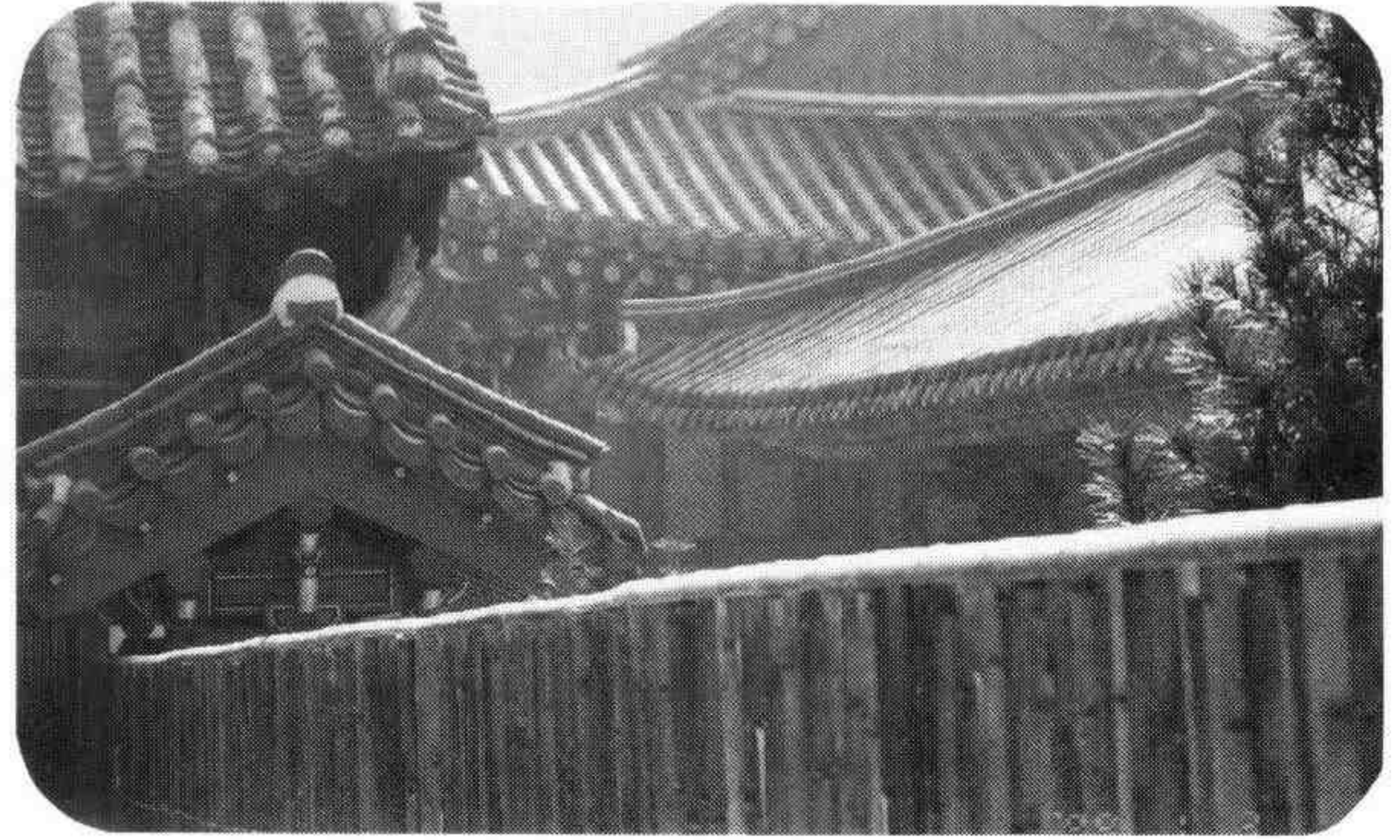


### 12월 3일 무인년 동안거 결제(結制)

무인년 동안거를 결제하였습니다. 올해는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 하는데 모든 스님들께서 공부 성만하시고 건강하게 해제(解制)를 맞이하시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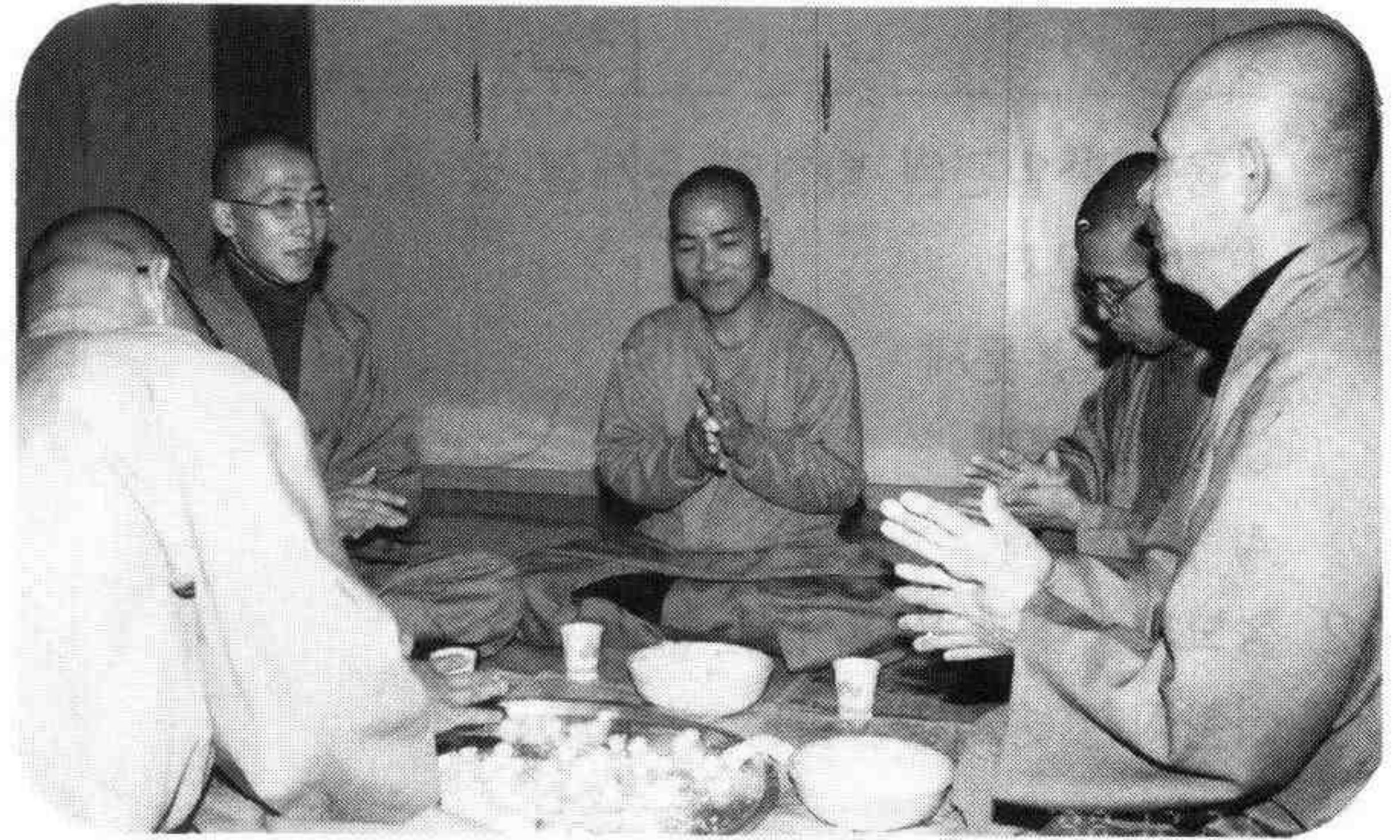
### 12월 12일 ~ 19일 강원 대나무 울력

강원 큰 방인 정혜사가 완공된 후 큰방 주변에 울타리가 없어 신도 및 일반인의 무분별한 출입으로 수행환경이 좋지 않았는데, 송광사 주변에 많이 있는 대나무로 울타리를 만들어 둘러했습니다. 서툰 솜씨지만 강원스님들의 신심 있는 운력으로 자연친화적인 울타리가 산뜻하게 마련되었습니다.



### 2월 12일 동지 팔죽 응심이 빚기

일년 중 밤이 제일 길다는 동지(12월 22일), 춥고 긴 동안거 결제를 무사히 회향할 수 있도록 기원하면서 동지 응심이 운력을 하였습니다. 크고 작은 모양도 다양하였지만, 건강한 겨울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한결같았으리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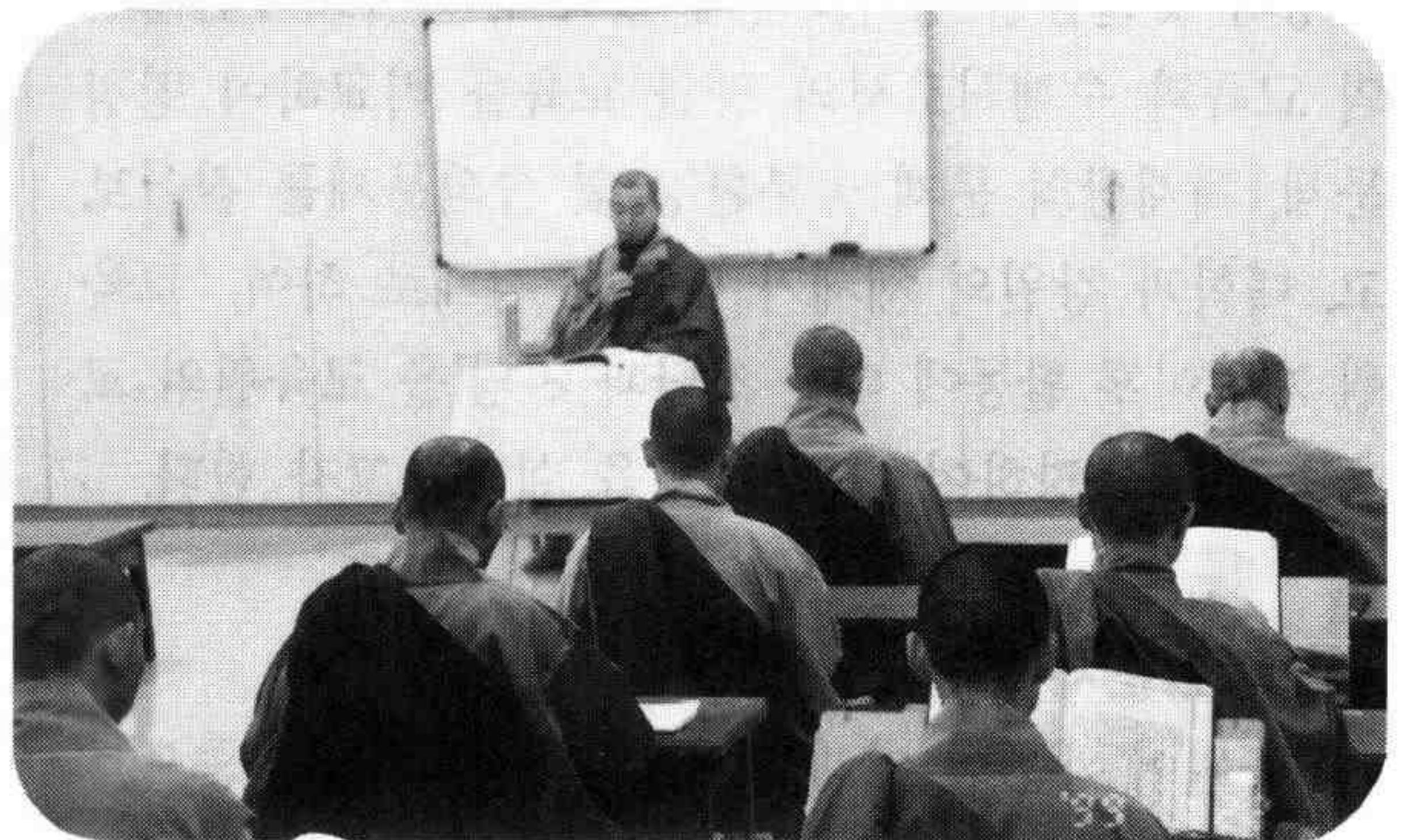
### 12월 31일 구산 대종사 추모식

작년에도 그랬듯이 올해에도 매서운 추위가 다가온 가운데, 사부대중이 모여 구산대종사의 15주기 추모식을 거행하였습니다.



### 1월 18일 ~ 24일 성도일 자비수참 대참회

성도일을 맞이하여 지금까지 지어온 많은 죄업을 참회하고, 큰 장애없이 수행정진할 수 있기를 기원하면서 일주일간 자비수참을 하고, 아울러 자비수참의 내용에 대해서 울주 지현스님으로부터 3일간 특강을 받았습니다.



## 교육원 개원 이후 활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

지운(智雲) / 松廣寺講院 講主

1. 교육원의 일관된 방침의 문제점 및 긍정적 평가
  - 1) 명칭문제
  - 2) 체제상 문제
  - 3) 환경 문제
  - 4) 습의문제
2.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불교의 대안
3. 바람직한 승가상정립을 위한 제언

### 1. 교육원의 일관된 방침의 문제점 및 긍정적 평가

주제가 너무 광범위한 감이 없지 않으나, 일선에서 접하는 몇 가지 현안에 주목하여 종단 교육에 대한 나름대로의 평가와 전망을 해보고자 한다. 먼저 교육원이 개원된 이래 나타난 제반 활동상을 통해서, 교육원이 지향하는 방침의 일관성에서 오는 문제점은 무엇이며, 또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부분은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할 때, 수행의 첫걸음인 행자교육에 있어서, 행자교육원에서의 교육과 수행처로서의 강원 교육을 비교하여 명칭문제, 체제상의 문제 공부환경 및 습의문제를 짚어보고, 대학과 강원체제의 차이를 전제로 하여, ‘교육원 개원 이후 활동에 대한 진단과 전망’을 교육원의 교육방침을 조망하여 그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명칭문제

교육원이 개원한 이래 교육방침은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동국대학교와 중앙승가대학교 똑같이 전통강원에 적용되었다. 그 단적인 일례로 승가교육개혁추진위원회에서 만든 승가대학령(강원령)에 명시된 강원이라는 명칭을 작년에 교육원에서 삭제하였다. 회의 내용도 대학을 기준으로 하여 강원을 평가하고 그렇게 바꾸도록 종용하고 있다. 조계종 교육원에서 발행한 “교육기관 관련 제서식 및 양식 검토본”에 보면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교육원의 이러한 방침, 즉 대학을 기준으로 설정한 교육방침이 과연 승가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것인가를 검토해볼 필요성을 느낀다. 물론 긍정적인 면이 없는 것은 아니다. 조계종의 강원, 대학, 행자 등의 교육을 조직화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자는 것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승가 고유의 政體性에 따른 전통적인 교육과 수행을 고려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세속적인 대학식 방법을 강요하는데는 적지 않는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다.

먼저 강원을 대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문제이다. 이는 단순한 改名으로 그치지 않는 복합적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講院의 설립목적이 ‘禪敎兼修’이듯이 우리 불교계의 전통적인 맥을 이은 수행의 장이다. 하나의 명칭에는 개인의 인식과 사회의 인식뿐만 아니라 역사가 숨쉬는 전통이 깃들여 있다. 講院이란 명칭에는 단순한 자구적 의미를 넘어선 한국불교계의 호흡이 있는, 그 자체가 역력히 흐르는 하나의 전통이다.

때문에 명칭변경이 안고 있는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곧 전통의 단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

본 원고는 1999년 2월 2일, 교육원이 주관하고 전국본사교무국장 협의회가 주최한 “종단교육 구조 및 제도의 진단과 전망” 을 주제로 서울 길상사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지운스님께서 발표하신 글입니다.

.....

문제, 즉 승가의 모든 것이 기본부터 흔들리는 위험을 내재한다. 출가의 사미, 사미니, 비구, 비구니의 위계 문제나, 교학과 수행, 생활방식이 송두리째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혹자는 대학이라는 명칭이 기존의 강원생활을 크게 손상시키는가 반문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강원과 대학의 체제와 생활의 차이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다. 혹간 조계종을 시대의 변이에 따라 필요하다고 해서 태고종이라고 명칭을 바꿔부를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 2) 체제상 문제

기본교육기간을 4년으로 책정한 데서 오는 문제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기본 교육기간은 강원과 대학이 모두 4년으로 동일하다. 때문에 강원을 졸업하고 대학에 가거나 또는 그 반대의 현상이 생기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8년이라는 기간을 기본교육에 투자해야 하는 점에서 시간낭비가 우려된다. 때문에 단순한 시간적 경제성을 감안해서 이러한 방침을 세운 것이 아닌가 추측할 수 있다.

대학식 체제를 선호하는 바탕에는 서양식 교육에 익숙해진 사회적 세태의 영향이 짙게 깔려 있다. 서구적 사고방식과 생활을 지향하는 사회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불교계에도 전해졌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7, 80년대에 고학력을 지향하는 풍토에서 더더욱 이러한 발상이 가능했을 것이다. 물론 대학을 선호하고 동경하는 시대의 탓만도 아닐 것이, 당시의 불교계에 내재해 있던 문제점도 상당부분 그 개선의 여지를 드러내고 있었음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통을 몰각한 개선책

이란 沙上樓閣이 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시대가 변하여 대학인력이 넘쳐나는 추이에서, 불교계에도 고학력의 출가수행자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때, 굳이 대학식 체제를 고집하여 전통을 말살하고 맥맥히 흐르던 불교의 정통성이 끊어지는 위험을 감내할 필요가 있겠는가? 오히려 옛것을 소중히 하고 거기에 현대적 감각의 보완점을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일례로 강원에서 고학력 출신의 스님들이 기존지식을 바탕으로 불교공부의 폭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은 서양식 교육에 길들여진 일반불자들에게, 서구식 사고를 불교식 사고로 쉽게 설명하여 전환할 수 있게끔 교화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강원이 대학의 영향으로 보인 변화로서 우선 강의 방식을 들 수 있다. 강원 특유의 강의방식은 학인스님들이 논쟁을 하고 난 후 강사에게 질문하는 형식의 문답이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방식이 대학식으로 일방적 주입식 방법으로 바뀌었던 것이다. 강원년한이 10년 내지 11년이었을 때는 이러한 논쟁식 강의가 가능했으나 4년으로 줄어든 지금은 주입식 강의방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요즘 사회에서의 교육제도를 보면 단순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문답식 세미나식 주제식 교육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본디 있었던 좋은 제도를 死藏시켜야 할 것인가? 이제라도 대학보다 강원의 강의나 공부방식이 더 효율적이고 탁월했음을 인정하고, 대학의 영향으로 잃어버렸던 강원의 전통을 다시 부활시켜야 할 것이다.

## 3) 修行도량으로서의 환경문제

승가는 특수한 불교공동체이다. 같은 목적을 가진 출가수행자들이 한 울타리에서 생활하면서 일거수일투족으로 석존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곳이다. 따라서 승가는 그 자체가 곧 불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한 승가내에 존재하는 강원은 따라서 출가수행자의 위외와 본분의 실천하는 수행도량으로서 특별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엄정한 계율과 정통의 습득 없이 출가의 의미를 찾기란 어렵기 때문이다.

강원을 대학식으로 이끌어가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강원s의 辨別性을 간과한 데서 나온愚가 아닐 수 없다. 한마디로 대학과 강원이 그 생활면에서 근본적으로 다르며, 따라서 기본교육의 場으로서 대학은 부적격하다고 단언할 수 있다. 대학은 어디까지나 이론공부에 치중하는 곳이지, 수행을 실천하면서 익혀가는 곳이 아니다.

반면 강원은 이론공부와 실천수행을 병행하기 때문에 대학과 다르다. 강원에서의 교리학습은 자기체험의 징검다리이며 대중교화를 위한 방편이다. 따라서 수행을 통한 교리이해는 폭과 깊이를 더하게 되면서, 信心이 증장되고 발심하게 된다. 적어도 몸과 마음을 觀하여 心眼이 열리기 시작할 때 비로소 無常이나 苦, 空의 가르침을 체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론으로 알고 있는 불교의 세계와 수행체험을 통한 불교의 세계는 전혀 다를 수 밖에 없다.

교리를 통한 수행은 수행 중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체험 현상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가질 수 있어 正道로 나아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向上一路의 경지로 나아갈 수 있다. 교리란 다름아닌 수행 중에 일어나는 갖가지의 수행체험과 경지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교리와 수행은 相依的인 관계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다. 강원s의 존재의미가 禪教兼

修임을 새삼 상기하지 않더라도 대학과 강원s의 변별성은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입장에서 보면 강원을 거치고 난 다음 大學이나 禪院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隨順이라고 하겠다. 信心과 發心이 없이 方便的 知識 습득은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심과 발심은 戒律이라는 윤리적 책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출가수행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면서 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출가의 본분을 몸에 익히는 데는 엄정한 계율의 준수가 필수요건임은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례로 譯經을 한다고 할 때, 아무리 기본적인 불교지식이 잘 갖추어지고 한문실력이 출중하다고 해도, 수행체험이 없으면 그 번역은 臆斷에 그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또한 禪院에 가더라도 교리학습을 무시한 수행에만 치중하여 생기는, 多聞의 慧가 없는 無聞比丘의 수행에 빠지는愚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강원은 대학과 선원 양쪽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체계를 갖춘, 修行의 場으로서의 튼실한 역할을 충실히 담당하고 있다고 하겠다.

講院은 禪教兼修하는 전통적인 修行의 장

출가수행자로서의 자질함양과 上求菩提 下化衆生하는 출가의 본분을 몸에 익히는 데는 엄정한 계율 준수가 필수요건

4) 습의문제

앞서 말했듯이 출가자와 非出家者의 차이는 戒律의 엄정한 준수에서부터 시작된다. 僧俗의 선이 분명하지 못하다면 승가의 존재이유가 없을 것이다. 출가수행자가 생활속에서 계율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면 누가 승가를 본받으려 하겠는가. 수행자라면 반드시 세속습에서 僧家의 習으로 바꾸는 것이 그래서 긴요한 것이다.

習을 바꾸는 일은 생각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실제 몸으로 실천하고 행해야만 가능한 일이다. 듣는 것은 곧 잊어버리지만 몸으로 익힌 것은 쉽게 잊혀지지 않

고 안으로 익어진다. 특히 수행자의 첫걸음을 딛는 행자교육 때 익힐 짚은 중요한 만큼 많기도 하다. 작년 가을 행자교육원에서 강의 횟수를 늘이고 습의시간을 줄인 경우는 그래서 위험부담의 소지가 크다고 하겠다. 習儀는 수행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익히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승가내에서의 체득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습의는 계를 받고 사미(니)가 되었을 때도 비구(니)가 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익혀야 한다.

이러한 습의는 일반대학이나 기존의 불교대학에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다. 습의란 이론이 아닌 지속적으로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식 강의체제하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 습의는 일거수 일투족 생활 속에서 꾸준히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한 것인데, 이러한 習儀의 단절은 오히려 행자교육에서 익혔던 습의마저 잊혀지는 모순을 낳을 수 있다. 반면 강원에서는 습의시간이 따로 있어 지속적으로 배우고 실습하고 있다. 이렇게 하여 몸으로 자연스럽게 익힘으로써 출가수행자의 위의를 갖추어 교리와 수행이 함께 증진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

승가의 習儀는 威儀를 익히는 것으로 『沙彌律儀』에 “威儀란 淨戒를 가져서 청정행을 구족하는 것으로 출가의 道品(깨달음에의 수단. 菩提分과 같다. 六波羅蜜, 三十七助道品 등)이며 인천의 스승과 모범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곧 습의에 의하여 교리학습의 이해를 돕는다고 볼 수 있다. 습의가 곧 수행이기 때문이다.

## 2. 정보화시대에 있어서의 불교의 대안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修行과 教化가 소홀해지는 것은 아니다. 단지 정보란 하나의 방편일 뿐이어서 수행과 교화에 참신한 방법을 도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에 얼마나 잘 대처하는가에 따라 앞으로 수행 체험과 교화의 성과가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제 불교도 한 지역에만 머물 수 없다. 중생이 있는 곳에는 어디에고 필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방편이 필요하다. 그것이 上求菩提 下化衆生에 중요한 길잡이로 작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수행방법과 교화방법은 그래서 다양하게 모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一례로 해외 불교와의 교류를 통해 한국불교의 지향점을 보다 폭넓게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우리의 전통성은 잘 보존하고 지키되, 세계의 불교동향 또한 섭수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해외의 대학이나 불학원, 수행센터 같은 곳을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견학하고 체험함으로써,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고 우리의 시선 또한 세계로 돌릴 필요가 있다. 금번 송광사강원에서 대만의 佛光寺의 총림불학원과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갖고자 하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교류가 정보화시대에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것이다. 이와 같이 강원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수행과 교화방법을 바탕으로 하여, 현대적인 새로운 정보의 결합을 모색할 때 창조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본다. 강원뿐 아니라 포괄적인 한국 불교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시대추이에 지나치게 따르다보면 그에 따른 위험성도 내재한다. 정보화시대에는 사람의 심성이 황폐해지고 이성적 사유의 남용을 초래하기 쉽다. 이러한 심성의 피폐화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본을 살피는 수행체험이 필수적이다. 그래서 실천수행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과 체험의 조화를 꾀하는 강원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다각적인 지식과 정보도 필요하지만 이를 실천과 체험으로서 증장시킬 수 있는 수행처로서는 강원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 3. 바람직한 승가상정립을 위한 제언

교육원이 개설되면서 그 기본방침이 ‘사회적 추세에

발 맞춘 승가의 바람직한 변화'에 있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그 개선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미 사회적으로 고학력을 선호하던 풍토도 아닐 뿐더러, 승가의 성격상 반드시 고학력의 인재가 출가수행자로서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대학교육자체가 개혁을 필요로 하고 그러한 방향전환에로의 모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마당에, 불교의 전통강원을 대학식 교육방식으로 이끈다는 것은 전근대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이제까지 교육원의 활동이 교육체계를 확립하고자 했음에는 높이 평가해 마지않는다. 그러나, 지나친 열의가 본래의 좋은 취지에서 멀어질 우려가 있기에, 이제 그 방향점점을 제시해 보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승가에서의 講院의 전통적 역할이란 거듭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대학이라는 환경상 대학에서의 불교공부란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다. 수행환경이 갖추어지지 않는 곳에서는 공부하는 마음이 흔들린다.

예불 등 習儀가 없다면 일반대학에서 불교철학을 전공하는 학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즉 출가수행자로서의 威儀와 修行의 생활화가 병행되지 않는 한, 敎學은 공허한 지식 습득에 불과하다.

이성적 논리를 훈련시키는 장소가 대학인 데 반해, 불교공부란 이성적 논리로 해결할 수 없는 生死와 깨달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이다. 그래서 자신의 내면으로 廻光反照하여 思考의 영역을 벗어나 단도직입으로 生死를 벗어나는 것인데, 어찌 이성적 논리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이는 전체에서부터 어그러진, 本末이 전도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습의 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살필 수 있다. 末寺에서 행자생활한 사람들은 지도해줄 스님이 없거나 대부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군대훈련소 들어가는 기분으로 마지못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사람에게 과목수를 늘여 가르쳐 보아야 머리에 들어오지 않는다. 몸으로 익히게

해야 비로소 속세의 쫓을 떨구고 수행자의 본을 따르게 되는 것이다. 이치가 그러하다는 것이다. 3주간 교육받은 知識으로, 世俗習에서 僧伽習으로 바꾸기란 불가능한 일이며, 불자들의 입장에서 보아도 승가의 위신에 크게 흠이 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실천수행도량으로서의 강원의 역할은,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인간의 심성이 파괴되고 소외와 단절이 일어나는 사회적 현상에 적용해 보더라도, 몸으로 체득하면서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찾는 수행은 절대 필요하다. 하물며 승가의 출가수행자의 입장에서야 더 말할 필요가 없으리라고 본다. 승가의 전통과 정통성을 무시한 체제개선안은 沙上樓閣이 될 수밖에 없다. 講院이란 엄연히 존재하는 우리 전통의 수행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일반적으로 대학식 체제와 교육방침을 적용한다는 것은, 그 취지가 아무리 좋은 관점에서 출발했다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하고 앞선 감이 없지 않다. 대학의 효율적인 면을 가져다가 강원의 전통적 방법에 접목시키는 방법에서 신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과 강원을 배타적 관계로 볼 것이 아니라 각기 특성을 잘 살린 상보적 관계로 될 때, 조계종 교육과 수행의 길이 튼실해지고 인재불사의 원만한 회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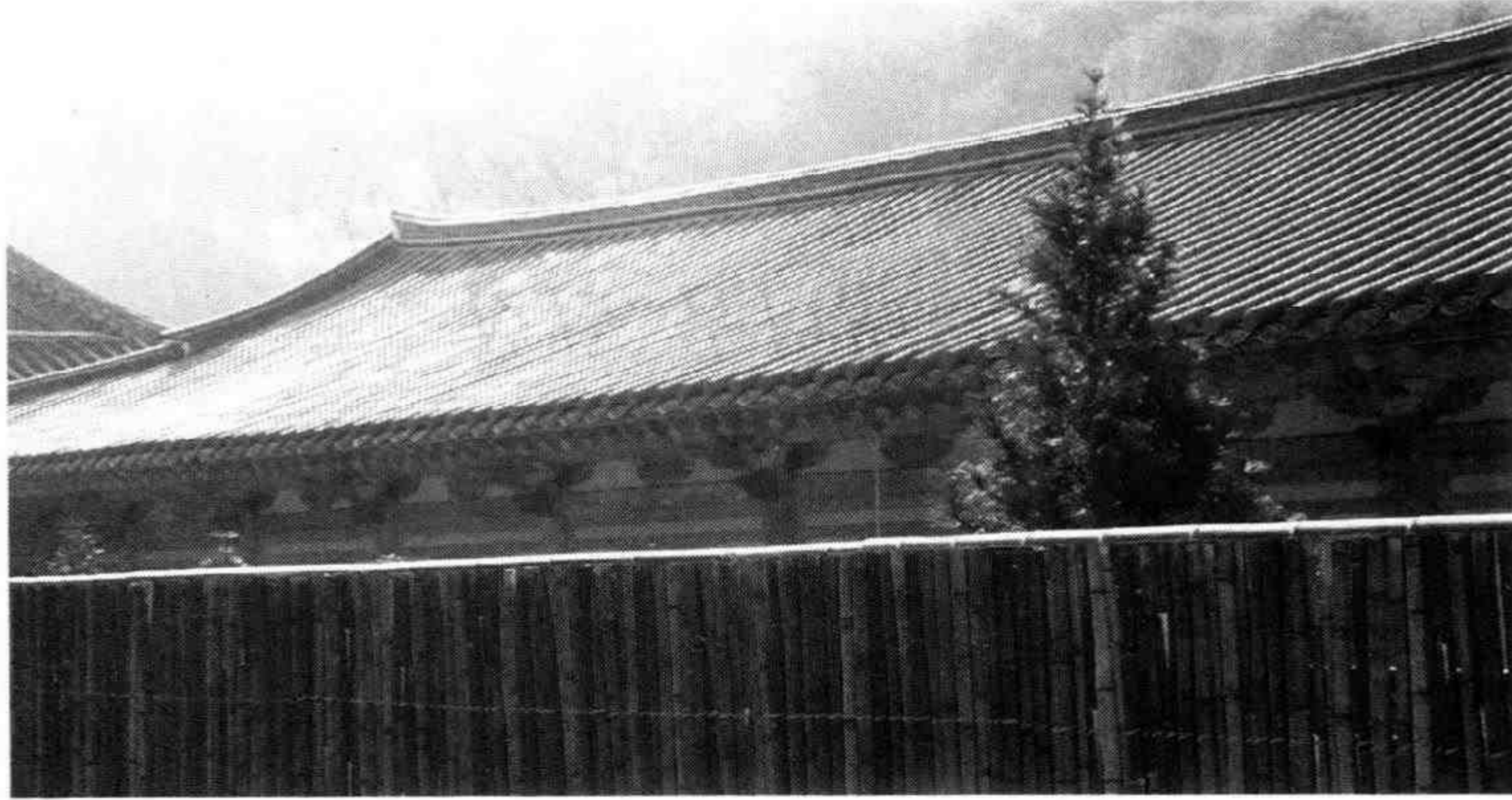
## 대나무 담장

본공(本空) / 사미울의

몇 년 전이었다. 구례를 돌아 하동으로 가는 길에 참배한 절에서 보았던 대나무 담장이 생각난다. 조그마한 고찰이었는데 깔끔한 대나무 담장이 거부감 없이 다가와 퍽이나 인상깊이 남아 있었다. 푸르스름한 대나무들을 꼼꼼이 묶어놓은 솜씨가 참 보기 좋았었다. ‘절에 사는 스님들이 짜 놓았을까?’ 궁금도 하고 ‘스님들은 어떤 사람들일까?’라는 생각마저 들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대나무담장 운력을 하고 있으니 참 재미있고, 머리깎은 스님의 모습으로 비취질 나를 생각해 보면 부끄러운 마음이 앞선다. 언젠가 무심히 지나쳐 봤던 그 담장을 지금 바로 내가 만들고 있으니 새삼 인연의 고리가 신기하게만 느껴진다.

이제 나는 강원에 입방한 지 석 달쯤 돼 간다. 그 동안 시간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고 다만 며칠 안된 것 같은데도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도 지나간다.

오늘은 대나무 담장 운력 때문에 오후간경이 없다. 아직 들어온 지 얼마되지 않은 사미반이라 윗반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대나무를 자르고, 나르고, 거들고, 정리하다 보니 하루가 거의 다 가고 있다. 쪽 쪽 뺀 대나무를 잘라서 푸른 대나무통을 엮어서 빗갈 좋은 대나무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다 두꺼운 대나무통 한, 두 개를 반쪽 토막 내서 울타리에 엮어 놓으면 멋있는 대나무 울타리의 기본 설계가 얼추 되어가나보다. 대나무 받이는 비올 때 울타리가 썩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그것을 올리려면 대나무에 나무 말뚝을 정확히 표시해 놓고, 다시 대나무에 불로 태운 못으로 구멍을 먼저 뚫고, 그곳에 다른 못으로 고정시켜야 하는 요령이 필요하다. 서툰 솜씨로 하다보니 여간 어색해 지는게 아니다. 키 안맞는 대나무를 톱으로 썰어서 키를 맞추고 매듭을 일정하게 묶으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간다. 평소에는 잘 안하던 얘기도 운력 때가 되면 마음터놓고 얘기하는 기회가 된다. 솜씨도 없고, 일머리도 몰라 어리둥절해서 서 있다 보면 윗반스님들이 참 답답해 하시는 것 같다. 그래도 뭔가 하려고 애써보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급한 마음에 실수도 하고, 딴 생각에 멍해지기도 해서



윗반 스님들에게 미안해질 때가 많다.

우리 반 스님들은 그래도 나보다는 다 나은 것 같다. 조그만 일에도 정성껏 하시는 성경스님, 의지력 강하고 작은 일에도 빠뜨리지 않고 지적해 주시는 보은스님, 요즘 다리를 다친 탓으로 약간 소심해져 있지만 섬세하고 정확하면서도 깔끔한 성격의 목음스님, 밝고 활달한 동림스님, 논리적이고 나름대로 주관이 뚜렷한 도운스님, 생각해 보면 우리 반은 한사람 한사람 개성이 너무 강한 스님들끼리만 모여 있어 어떤 때는 저절로 웃음도 나오고, 그 사이 끼어 있는 나는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서 가끔 혼자 재미있어 하기도 한다. 우리 반 스님들과 있으면 언제나 뭔가 배울 수 있어서 좋다.

담장이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동안, 서로간에 쌓였던 감정이나 번뇌덩어리들을 던져놓고 웃고 떠들고 하다 보면 단조로운 생활 속에서 맺혀진 피로들이 한꺼풀 두꺼풀 벗겨나간다.

으스스해지는 초겨울, 따사로운 양지를 찾아 쉬면서 대나무 담장운력을 마무리하고 있다.

용기종기 잘 짜여진 대나무 담장  
 그러려니 무심코 보기좋은 그 담장  
 똑같은 키 비슷한 두께  
 이스님은 이렇게 저스님은 저렇게 나는 또 이렇게  
 열기설기 맺고 잇고 하다 보면 어느새 한 울타리  
 푸른 나무 노란 나무 희뿌연 색 바랜 대나무  
 그 속에 잘 감춰진 매듭끈 하나  
 이제 어지간이 맴시나는 대나무 울타리  
 사이사이 일고가는 수없는 생각들  
 양지녘에 몸을 녹이는 우리 스님들  
 하얀 소박눈 내린 뒤 푸른 저 대나무 담장

## 반야용선(般若龍船)

진관(眞觀) / 치문

내가왔소 내가왔소 할아버지 내가왔소  
고향떠난 반강산에 내가왔소 할아버지  
이몽룡이 나타났나 어사모는 삭발이요  
김삿갓이 유람왔나 비단옷은 누더기다  
선달그믐 칠혹속에 장작불이 웬일이며  
신혼초야 불밝혔나 동네사람 다모였네  
감나무를 돌아서도 누렁이는 간데없고.....

숨을 곳이 없었다.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지금은 장독대에도 마루 밑에도 숨을 곳이 없었다. 그저 웃놀이할 돈 달라고 짓궂게 보채는 동네 일가치의 농취인 상여가를 들을 수 밖에.

어제였구나. 전화로 전해진 할아버님의 임종소식. 많은 날들을 준비하고 대비해 왔건만, 못 사람의 장례식 모양 평상심을 가지려 했건만, 그 억지가 도리어 나를 더욱 혼란스럽게 했다.

5년만의 귀가는 서둘러졌으며 여수에 도착해서야 삭발목욕을 하고 가야 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최소한 할아버님의 삶에 욕되지 않는 모습으로 담담해야 겠다고 자기최면을 걸었다.

청혼편 : “영가이시여! 이 세상 오셨을 때는 어디로 부터 오셨으며 이 세상을 떠나실 적엔 어디로 가시나 이까?” 옛 어른의 말씀에 “사람이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이는 것과 같고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사라지는 것과 같아서 실다운 본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고 죽음이 구름 같다고 하셨건만 영가가 가신 뒤 이처럼 참을 수 없는 오열만이 천지에 사무치 나이다.

진관 : “영가여 어디에 계십니까.” 88년의 삶을 “사람 기다리기, 왜이리 힘드냐”라는 유언으로 남기게 한 못난 손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 한잔 올리지 못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못하고, 요령을 흔들어야 하는 손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가여 보이십니까? 삭발염의한 조그마한 아이가 보이십니까?”

세수편 : 이제 손을 씻으시니 이 도리를 분명히 잡으시어 시방세계의 불법이 손바닥 안에 소장하실 것입니다. 금일 영가시여 나무에 올라가 가지 끝에 매달리는 일, 신기할 것이 못 되나니, 천길 벼랑에 매달렸다가 손을 털어야 대장부랍니다. 영가시여 그동안 관념을 모두 버리시고 법신의 높은 경지로 눈길을 돌리소서.

진관 : 영가여 죄송합니다. 사람은 자기의 무게만큼은 고통을 가지고 태어나나 봅니다. 따스한 품을 벗어나 스스로의 삶을 가고자 했던 것이 제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의 희망들이 산산이 부서져, 당신의 가슴에 못으로 박히는 걸 알면서도 차마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착군편 : 영가시여 지, 수, 화, 풍 四大로 색신이 이루어질 때 이 자성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四大의 색신이 무너질 때에도 이 자성은 무너지지 아니합니다. 나고 죽고 이루어지고 무너짐이 모두 허공의 꽃과 같거나 원수와 친구와 죄와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 것 모두 없으니 평온하고 걸림없는 허공과 같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참마음이 변하여 나타난 것이요, 들쭉날쭉한 현상계가 모두 주인공임을 아옵소서.

일생을 시름 속에 보내다 보니 .....  
밝은 달을 바라보기 부족하였네 .....  
이제 길이 누워 상대 할 것이니 .....  
이 길도 이미 싫지 않구나. □

진관 : 영가여 기억합니다. 탁주와 청주를 흔쾌히 드신 날이면 읊조리던 시조가락이며, 얼굴을 부비시던 수염의 감촉을, 마지막 삶을 문집으로 정리하셨던 외할아버지의 출판일 날 거나하신 모양으로 “내 사십이 되어서야 지계를 졌느니라”며 “니 애비 도울려고 그때서야 내가 지계를 졌단 말이다”라고 하시던 그 모습을. “고향을 알아야 한다”고 부모님을 따라 전학 보내지 않고 자신 밑에서 통학을 시키실 때 그 엄함을...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이제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관편 : 영가시여 자세히 들으소서.

모든 중생의 몸과 마음은 모두가 허깨비 같아서 몸은 사대로 이루어졌고, 마음은 육진에 의해 분별하나이다. 이제 당신의 사대가 갈 곳으로 돌아갔으니, 무엇이 어떻게 화합했습니까? 대중은 말해보시오. 오늘 영가가 가신 곳은 어디십니까? 모든 부처님 세계는 마치 허공의 꽃과도 같아서 과거, 현재, 미래에 온통 평등하고 가고 음이 없습니다.

진관 : 영가여 무아라고 합니다. 내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내가 없다는 생각도 없어야 하고, 그 생각마저도 없어야 한답니다. 5년간 줄창 앉아 “내가 없다, 내가 없다” 라고 했습니다. 영가여 내가 보이십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의 말을 듣고 있는 분이 참입니까? 저 앞에 누워 있는 분이 참입니까? 어느 것이 참이며, 어느 것이 그림자입니까? 아니면 둘다 참이고, 둘다 그림자이십니까? 이 몸 사지를 찢어 허공에 뿌리면 무아입니까? 눈 한번 감으면 무아입니까? 모를 일입니다. 이 몸이 멀쩡한데 없다고 ..

그렇게 시다림을 끝내고, 밤새워 염불을 하였다. 상여가 떠날 쯤 범사비라고 내미는 어머니의 봉투를 마지막 여비로 할아버님께 드렸다. 피곤하다. 어색하던 동네어른들의 시선도 고향이라는 감회도 없다. 문득 어디로 갈까? 하는 생각이 든다.

“어디로?” 라는 생각을 해 본지 꽤 오랜만인 것 같다. 출가자의 길이 당연하고 필연적이라 생각하였기에 그냥 그 길을 걸어 왔는데, 염도 하지 않은 채 나를 기다린 할아버님의 주검 앞에서 문득 내 자신 속에서 또 다른 모습으로 잠재되어 있었던 내가 “너가 진정 수행자냐고? 혹 위선으로 살고 있지 않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온통 거짓과 위선 일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다만 그 속에서도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내일은 분명 오늘보다 나아 수 있다는 수행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이며, 그 누구보다도 이 길을 간절히 원하는 내 영혼의 소리를 잘 알고 있기에,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이다.

□

一生愁中過 明月看不足  
萬年長相對 此行未爲惡

일생을 시름 속에 보내다 보니  
밝은 달을 바라보기 부족하였네  
이제 길이 누워 상대 할 것이니  
이 길도 이미 싫지 않구나.

(조선시대 선비 이양연의 자작 만장)

## 남해 일출

동림(東林) / 사미울의

“사자뿔 베고과서 칼을 찾는 저 장부야, 얼빠진 장승에게 누가 찾아주오리? 자아를 깨우쳐 남에게 은혜를 베풀고 금수강산에 낙원을 이룩합시다.” 딱! 딱! 딱!

아침공양을 마치는 죽비소리가 세 번 울렸다. 여느 때와는 달리 마음이 설레었다. 강원에 들어와서 처음 맞는 방학이어서 일까? 은사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걸망을 메고 도반스님과 같이 일주문을 나섰다. 아침 햇살이 눈부셔서 그런지 도반스님의 얼굴이 환하다.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버스정류장에 도착하니 갑자기 어디로 가야할까 망설여졌다. 마침 도반스님이 일출을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데가 있다고 함께 가자고 하여 버스에 올라탔다. 아주 먼 곳이었다. 버스를 긴 시간 동안 타고 다시 택시를 갈아탔다. 택시기사님이 오늘 같은 휴일은 물론 새해가 되면 각지에서 오는 관광버으며 자가용으로 길게 늘어서 도로가 정체될 정도로 참 유명한 곳이라며 장황하게 설명하였다.

도로가로 끝없이 펼쳐진 바다에는 군데군데 섬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양식장 부표 사이로 조그마한 배들이 부지런히 다니고 있었다. 확 트인 동해바다와는 다른 아기자기함이 있어 인간미마저 느껴졌다. 해안선들을 쭉 따라 다니 수평선만 보이는 땅끝 한 지점 바위 위에 도착하였다. 시원하다. 처음 삭발을 하였을 때의 생각이 났다. 그때 행자생활 동안의 긴장과 불확실성에서의 해방감으로 시원함을 느꼈었는데 특 트인 자유로움이 이제 새삼 시원하다. 다소 들뜬 마음을 추스르고 암자로 향했다. 도착하여 암주스님께 인사를 드리고 나서 거처할 방을 부탁하니 이게 웬 일인가? 기도하는 사람들로 가득차서 방이 없다는 것이다. 서운한 마음으로 다시 걸망을 메고 내려오는데 어떤 보살님 한 분이 숙소가 없는 사정을 알고 우리 집에 방이 있다며 그냥 자고 가라고 하였다. 문득 은사스님의 말씀이 스쳐 지나갔다. “만행하면서 여관에서 자기도 하는데, 젊은 사미스님이.....” 그래서 고마움과 서운함을 전하고 근처의 다른 절을 찾아봐야 겠다고 내려와 택시를 타는 곳으로 가려는데 저녁이 가까운 시간이라 마땅한 데가 없어서 도반

스님에게 애꿎은 짜증만 부렸다. 겨우 처사님의 안내로 ‘절’ 아래 모텔에서 걸망을 풀었다. 새벽3시. ‘습’이 배어있어서 그런지 어김없이 암자로 올라가 예불을 드리고 아침공양을 하였다. 공양을 마치고 나서 법당의 난간에 서니 은은하게 들려오는 염불소리와 바닷 바람소리가 산사와는 다른 느낌을 주었다. 미명의 새벽 바다를 바라보며 저 멀리 있다는 세존도에 합장을 하고, 어제 저녁에 보았던 풍경들을 하나씩 되새겨 보았다. 해안가 마을, 개 짖는 소리, 횃집과 불빛, 연인들... 그리고 낮설음. 출가를 하고 첫 만행이어서 그런지 어색함과 함께 자꾸만 바깥경계에 끄달리는 나를 챙겨 보지만 쉽지가 않았다. 오고 감이 없는 것이 불법의 진리라 하지만 왜 이렇게 두고 온 것들, 떠나 온 사람이라는 생각이 앞서는 것일까? 세간과 출세간이 하나라고 하지만 아직은 분별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초심자의 최선일까? 라는 생각을 했다.

일출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어서 관음전으로 올라가 보았다. 그 옛날 원효스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천천히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있는데 도반스님이 한참 찾았다며 나를 불렀다. 관음전에는 벌써 이름 모를 선남자, 선여인들이 구수한 입담으로 일출의 설레임을 토로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단정히 두손을 가슴에 모은 채 서 있는 두 비구니스님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바다를 응시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느껴지는 아늑함과 수행자로서의 동질감, 여법한 그분들의 모습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잔잔하게 향기를 발하고 있었다.

이윽고 바다 한 가운데 빠알간 연꽃과도 같은 것이 서서히 떠오르자 모두 감탄의 함성을 냈다. “그 강력한 빛이 어둠을 헤치고 바다물에 비추듯 우리 중생의 팔만사천번뇌 또한 이와같이 사라지이다.”라고 발원하여 본다.

매일 어둠을 밝히는 태양의 수고로움은 삼세의 부처님의 원력이 아닐까?하는 생각하면서, 깨달은 자가 되기 위해 수행자의 길에 들어서서 이제 겨우 몇 달, 아직은 저 햇살의 따사로움 속에서 한껏 신심을 충전하고 싶은 마음이 앞선다.

## 언어문자(言語文字)와 깨달음

도담(道潭) / 사집

양지바른 곳 매화는 한껏 꽃망울이 부풀어 있고, 꼬마새의 날개짓이 여유롭게 보여지니 봄인가 보다...

아무리 글을 잘 쓰는 이라도 이 봄의 정경을 100%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시냇물의 흐름이 한결같은 것이 없듯이 삼라만상이 무상(無常)하다고 불교는 가르치고 있다. 즉 빈틈없이 변화하므로 어느 것 하나, 이것이라고 고정화 내지 실체(實體)화시킬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말이다.

위의 봄 정경을 보더라도 언어문자로 실상(實相)을 사실 그대로 표현할 수가 없다. 즉 문자로 표현된 것은 실상과 많은 거리가 있음을 알 수가 있다(완전하지 않다).

깨달음이란 무엇인가? 실상을 바로 보는 것이다. 부처님과 역대조사 선지식 스님들께서는 眞如를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또는 不可說 不可念 言語道斷 心行處滅의 세계라고 했다. 허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부처님과 제대 선지식께서는 팔만사천 법문과 수많은 禪書를 후대에 남기셨으며 한결같이 나는 한마디 법문도 한 적이 없다고 하셨다?? 어떻게 새겨 들어야 바르게 받아들이는 것일까?

일단 언어 문자부터 살펴보자. 생각을 글로 옮긴 것이 문자요 말로 한 것이 언어이다.

언어문자의 속성은

1. 부분으로써 전체를 나타낼 수 없다(장미꽃을 예로 들어 그 물기, 온기, 햇볕, 색깔 등 장미꽃의 온전한 모습 전체를 표현할 수가 없다).

2. 실상(實相)은 무상(無常)으로 변화하는데 반해 언어문자를 쓰는 순간 실체화된다.

3. 고정화된다.

4. 분별심('나'와 '너'라는 식의 인식으로 소외감이 생긴다).

5. 구속(한정)력(예를 들면 책상은 앉아서 책 보는 도구로만 한정된다).

6. 복제적이다 - 실재의 장미꽃은 無常하여 없어질 수 있으나, 생각으로 이루어진 장미꽃은 현실적으로 없어지지 않는다. 장미꽃이라는 개념을 개인이나 사회적으로 버리지 않는 이상 시간과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계속 똑같이 복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처럼 개념과 실재 사이에는 뛰어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그래서 언어 문자를 부정하는 것이 불교의 주를 이룬다. 실재 컵은 컵이라고 말해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말인즉 컵이다. 그러므로 수행자의 출발은 言語寂滅, 즉 언어와 결합된 문제, 마음, 생각, 속성 등 그 업력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다음, 實相은 어떠한가?

實相은 無常으로서 실체가 없는 無我, 空, 空寂靈知, 佛性 등으로 표현된다. 만약 실상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다면 그로 인해 막혀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실상은 투명[空]하기에 일체변화를 낼 수가 있다. 공적영지인 실상은 인위적이거나 조작이 없는, 시간과 공간의 장애를 여윈 본래 있는 그런 성질로 모자람도 없고 도움이 필요없는 無修無證 本來清淨 완전 무결한 것이다.

금강경에서는 제일 큰 공덕을, 經을 受持讀誦하는 것으로써 菩提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

言說은 有爲이고 깨달음은 無爲인데?? 어떻게 有爲를 수행해서 無爲를 이룰수가 있는가?

有爲든 無爲든 실체가 있다고 하면 깨닫기가 어려울 것이나 모두 그 실체가 空하기에 가능하다. 바로 空即是色이며 煩惱即菩提이다. 서로 대립하지 않고 卽으로 해소되는 것은, 실체론적인 차별관 그것으로 보는 것

로 침묵의 세계로 인도하신다. 언어문자는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지 달이 아니다. 손가락에 속지 말고 손가락 너머 달을 보라고, 당신들은 한결같이 한 말씀도 하신 적이 없다고 하신 것이다. 眞理는 言說을 끊은 無爲일지라도 言說(부처님과 역대조사스님의 말씀)은 바로 無爲의 因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信心이 至極하면 有爲가 변해서 無爲가 되는 것이다. 화엄경에 “믿음은 도의 근원이요, 공덕의 어머니”라고 했다.



言說은 有爲이고 깨달음은 無爲,  
有爲를 수행해서 無爲를 이룬다.



이 아니라, 비실체론적인 평등관으로 보면 卽이 가능하다. 번뇌를 실체로 보지 않고 한생각 돌이킬 수만 있다면 번뇌가 바로 보리로 변할 수 있다. 번뇌를 실체로 보면 영원한 번뇌일 것인데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다. 본래 부처도 없고 번뇌도 없으며 중생도 없고 지혜도 없는 空한 것이 진리이다. 여기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차별심이 되고, 실체로 생각하는 중생심이 생겨난다.

無明이 왜 생기나?

어떤 원인을 찾는 것은 실체화되는 사고 방식이다 (무명이 실제 있으니까, 무명의 원인도 있다는 사고방식). 무명은 ‘실체화’하는 사고방식에서 생긴다. (그렇다면 무궁무진한 원인이 나타나게 된다.- 원인이 실체가 되고 그 실체의 원인 원인....). 무명 또한 실체가 아니며 원인이 없는 것이다. 번뇌가 있고 空寂靈知가 있다는 실체론적 생각은 지극히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누가 만든게 아니라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을 내는 것이다. 부처님과 선지식께서는 이같은 중생심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 언어문자란 방편을 써서 언어문자의 속성이 소멸되는 팔만사천 법문과 수많은 선어록 등으

信과 解의 관계에 대해서 보조사님의 『眞心直說』 ‘眞心正信’에서는

“永明云 信而不解 增長無明 解而不信 增長邪見 故知 信解 相兼得入道疾”라 하였다.

번역하면 “영명연수 선사께서 말씀하시길, 믿기는 믿으나 알지 못하면 무명만 증장하고 알기만 하고 믿지 않는다면 삿된 견해만 증장한다. 고로 알라 믿음과 앎이 서로 겸해야 도에 들어가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다.

이 때의 앎은 실천[行]을 동반해서 證得함이 있어야 올바로 공부하는 것이 된다.

修行法 가운데 하나인 간화선(看話禪)은 話頭로써 언어도단에 이르게 하여 화두마저 사라져 깨침에 들게 한다.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생각의 길이 갈 데까지 간, 가장 미세한 생각 의심인 화두 참구법도 疑團[의심덩어리]이 생기기 위해서는 부처님과 선지식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 곧 믿음으로써 疑團[화두]을 드는 것이다.

팔만사천 법문도 실체의 입장으로 보는 중생에게는 번뇌가 되지만, 緣起와 空의 입장인 부처가 말하면 진리가 된다. 염불, 간경, 예불, 기도, 참회, 주력, 공양, 강

의, 운력 등 일상사에 말길[言路]과 생각의 길[心行處]이 끊긴 자리를 觀하는 회광반조(回光返照 : 언어문자, 相, 외부, 생각 이전의 것을 觀照함)는 분별심을 사라지게 해 깨달음에 이르는 데 필수이다. 모든 수행은 바로 '나'란 생각 '너'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다. 그 중에 특히 중요한 것은 '나'란 생각을 없애는 것이다. '나'란 생각 때문에 '너'란 생각이 일어난다. 참선, 화두수행도 '나'란 생각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으며 또한 忍欲行과 下心은 我相을 조복하는 데 좋은 수행법이다. 말할 것을 말하지 않고 참는 것은 분별심과 아만심을 내지 않게 해준다.

상대방이 나한테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나'란 생각을 내지 말고 참으라. 수행자가 남의 허물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함은 근본적으로, 중생의 입장('나'와 '너'란 입장)에서는 我相이 치성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부처는 '나', '너'란 생각이 없고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입장이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 수행이 될수록 我相이 점점 없어지니까, 남에 대한 견해를 안 갖게 되고 오히려 자기 허물만 보이게 된다. 말이란 분별심이며, 默言은 분별심을 끊는 연습이며 깨달음에 익숙해 지는 것이다.

사람은 성숙될수록 나의 범위가 넓어진다. 불교의 나의 범위는 대상이 무한정이며 종교도 有無情도 초월하는 삼천대천세계가 나이다. 수행의 점점은 남과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나와 남을 동체대비로 보는가?

번뇌란 나와 남으로 갈라지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取와 有는 그 중 가장 치성한 번뇌이다.

우리 공부는 분별심 없애려는 지혜공부이다. 탐진치(貪嗔癡)를 내지 말고 業力에 끌려가지 않으며, 無我行과 同體大悲로 自利卽利他人 無心平等인 올바른 行, 즉 中道를 行하다가 機緣[거의 깨달으려는 시절인연 : 촛불이나 빗장, 방(棒)이나 할(喝) 등이 계기가 됨]을 만나면 實相을 보는 눈이 열리면서 직관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世間은 有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지만 出世間은

空의 입장으로 보는 가치관이다.

日用事無別  
唯吾自偶諧  
頭頭非取捨  
處處沒張乖  
朱紫誰爲号  
丘山絕点埃  
神通并妙用  
運水与搬柴

일상사가 다를 것이 없나니  
내가 스스로 하나가 될 뿐  
무엇이나 취사(取捨) 없으니  
어디서건 어긋남이 없다  
고관을 누가 귀하다 이르던가  
청산에는 한 점의 티끌도 없는 것을  
신통묘용(神通妙用)이 무엇이나 하면  
물을 길고 땀나무 나르는 일

-방거사-

祖師의 悟道頌도 경전의 확인에 불과하다.  
말보다 行은 얼마나 어려운지...

나의 살림살이를 속속들이 아는 도반스님들께 深히 恥하다.



## 끝없이 걷는 이

도운(道雲) / 사미울의

어머니 아버지 도움을 얻어 한 생명 태어나다.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것, 혀에 닿는 맛, 몸에 느끼는 촉감을 즐겨,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토라지고 울어 부모를 속상하게 하였다네.

제 자식 행여 뒤질세라 남들 가는 학교 서둘러 보냈다네. 매일 매일 그 많은 시간 학교 가서 듣는 소리 ‘공부 열심히 해서 남들을 이기며 살아야 한다.’ 이 사회는 커다란 약육강식의 세계여서 이기지 못하면 생존하지 못하리, 많은 시간 학교 가서 공부하고 수업하여 걸으로는 ‘화합하고 남을 도우라’는 많은 말을 들은 것 같지만 결국에는 자기 잘되고 남보다 위에 서라는 교육이었네. 만물의 영장으로서 인간의 자존심을 추구하라는 소리였네.

수많은 학교 친구들, 선생님들, 직장동료들 속에서 무던히도 속썩었네. 그들 속에서 뛰어나고,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수없이 갈망하고 속썩이며 발을 굴렀다네.

시간이 흘러 대한의 남아라면 누구나 겪어야 할 군대에도 가보았네. 적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훈련, 내무반 생활, 많은 분쟁과 대립을 위한 피나는 몸부림이었네. 실로 잘 살아보려고, 남들보다 뛰어나려고, 위세나 권위를 얻으려는 조그마한 순간들이었지. 쾌락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고민하고 번민하던 많은 시간들이었네. 하지만 그토록 갈망하고 추구하던 쾌락은 변질되는 무상한 것들이었네. 갖은 욕구로 얻었던 쾌락과 욕구가 사라질 때의 싸늘한 느낌. 과연 이토록 동경하고 추구할 만한 것들이었나?

하지만 달리 길이 없었다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우리들에게 전도된 기쁨을 주고, 또한 달리 추구해야 할 새로운 것도 보이지 않았다네. 탐닉 후의 그 싸늘한 고통을 맛보면서도 달리 어쩔 수 없이 남들 하는대로 열심히 그 맛을 추구했네. 눈으로는 화려한 빛깔을 쫓고, 귀로는 기분 좋게 하는 소리, 코로는 향긋한 향, 혀로는 감미로운 맛, 몸으로는 부드러운 촉감, 마음으로는 싫고 좋은 많은 대상들에 도취되었다네. 그러면서도 이 갖가지의 대상물들에 싫증이 느껴지기도 하고 웬지 석연찮은 감이 있어 정처없이 매인 바 없이 걸어가는 나그네가 좋아 하염없이 길을 걸었다네. 잡초들이 우거진 언덕길 먼지 나는 비포장도로, 인간문명의 딱딱함이 느껴지는 시멘트길, 작렬하는 한 여름의 더위를 머금은 아스팔트길, 발 밑의 감촉이 못내 아쉬운 자갈길, 이 많은 길들을 사랑하였지.

외로움과 변신, 매인 바 없음의 자유로움, 문명을 등지고 근원 상태로의 회귀를 느끼게 해주는 이 길들에의 나아감은 실로 이 사람의 적당한 취미요, 자유로운 사색이요, 집착과 고집에서

벗어남이요, 사랑함과 미워함에서 벗어나는 좋은 친구였다네.

벗들 속에서, 윗사람 속에서, 가족 속에서 이리저리 부딪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얻어진 많은 상념, 상념, 상념...“이렇게 싸워야 하였나?”

“오늘은 어떻게 살아야지? 무엇을 먹고 싶다. 누구를 만나고 싶다. 오늘은 이렇게 놀고 지내리라. 이 인생을 어떻게 꾸려야 하나. 왜! 살아야 하는가?”

저 끝없는 의식 세계의 길을 따라 걸으며 보았다네. 길을 따라 발이 옮겨가듯이 온갖 대상 따라 쉼 없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많은 무리의 모임 속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지 똑똑히 보았다네.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치레와 체면과 격식을 차려야 하는지를.. 한번은 배를 타고 해안 경비를 마치고 섬에 정박해서 쉬고 있었지. 뚜렷이 할 만한 일도 없이 서가의 책을 뒤적이다 “불교성전”이라는 책을 보았다네. 사춘기를 겪으며, 무식을 면하기 위해 많은 책을 읽으려고 노력하였지만, 이러한 책을 만난 건 처음이었네. 문자를 뒤적이니 부처가 있었네, 사슴왕, 인욕선인, 마음을 살피는 이, 왕의 아들, 고행하는 이, 갖은 욕망, 본능과 싸우면서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는 한 존재가 있었네. 이 이가 보여준 자비·인욕의 모습은 조금이라도 더 잘 살기 위해서 겪었던 많은 사람들과의 만남,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 서라고 말했던 과거의 많은 책 속의 이야기와는 다른 것이었네.

자기의 완성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였던 완성자는 이렇게 설파하였네.

“자신을 위해서나 타인을 위해서 고행하는 이들이여, 쾌락에의 탐닉과 몸과 마음을 괴롭히는 고행이라는 양극단을 버리고 안온하고 청정한 중도의 길을 가라.”

중도란 이것이니 바른 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직업, 바른 몸과 입과 뜻의 작용을 지니는 것, 바른 기억, 바른 노력, 바른 마음 집중이니...

여덟 가지 바른 길[八正道]을 알면 인연 따라 부서지는 모든 존재가 무상한 것들이어서, 이 무상한 것들의 모임 내지 집착으로 인한 고통, 그 고통의 원인인 탐·진·치, 그것에 대한 집착을 버림으로써 얻어지는 열반, 열반에 이르는 방편을 사성제(四聖諦)라 하였다네. 실로 미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겪지 못했던 또 하나의 우리가 걸음직한 길을 세존의 생애와 말씀 속에서 보았다네. 많은 존재들의 실상과 마음의 끝없는 작용에 어둡다가 다행히 본연의 존재로 나아가는 이 길을 알았거니, 이 한 생, 끝없는 생각과 갖은 고통을 지닌 이 몸뚱이를 끌고서 신나게 걸어보려 하네.



## 초발심 학인

보은(寶隱) / 사미울의

절에 와서 들은 ‘사람 몸 받기 어렵고, 사람 몸 받아 부처님 법 만나기 어렵고, 부처님 법 만나 출가하기 어렵다...’는 말이, 이제 조금은 자연스럽게 입에 뱀지 1년여를 지나고 있다. 그 시간만큼이 내가 출가, 즉 입산한 세월이다. 이제 겨우 예불이 몸에 스며서 ‘감응’이랄까 하는 것이 느껴진다는 말이다.

처음 입산했을 때가 작년 1월 초순, 행자실에 입방하면서 절 생활을 시작하였다. 밖에서 살던 습이 그대로인 내게 새벽 세 시에 깊은 산속의 어둠을 헤치고 일어나 찬물에 세수하고, 법당에 들어가 대종이 치기까지, 숨가쁘게 하는 절은 일체의 망상을 제거하기에 충분했다. 마루바닥의 냉기는 발가락을 곱게 만들고 합장한 두 손끝은 저런 듯 시려왔다. 하지만 법당안의 장중한 찬탄은 내 자신과 번뇌망상을 초라하고 의미 없게 만들었다. 추위와 장엄한 예불의식은 매일같이 나를 전율케 했고 불단 바로 밑이라서 부처님을 바라볼 수조차 없었지만 예불하는 시간마다 자신도 모르게 모든 번뇌가 쉬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현생에 지은 원과 업만도 ‘猶如山海’ 할진대 이 많은 죄업을 어찌 다 녹일 수 있을까? ‘나는 왜 출가를 했는가?’를 생각하며 한 줍의 불씨 같은 ‘신심(信心)’을 지켜나가며, 후원소임을 그저 열심히 살았던 겨울이었다.

서먹하던 행자실 분위기도 조금씩 익숙지면서 말씨도 낮설고, 성격도 나이도 그야말로 각양각색인 행자님들과 조금씩 말문이 트이고 한 권씩 가슴도 열 수 있게 되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다. 그럴 때쯤 봄이 와 새순은 돋아나고 사중 곳곳은 잎보다 먼저 핀 꽃들의 향기와 고운 빛깔로 도량은 밝아지고 있었다.

드디어 행자티가 나면서, 소임다운 소임이 주어지고 그런 만큼 책임과 일은 늘어만 갔다. 행자 시절은 어느 스님네나 마찬가지로였을 테지만 늦깎이인 내게는 속가의 습이 거칠게 남아 있어, 이런저런 일로 부대끼면서 마음 상하는 때가 많았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절을 하는 버릇이 생기게 되었다. 끝없이 이어지는 번뇌 망상을 녹이고 마음 다스리는 방법으로는 절[拜] 만한 것이 없었다. 절이 익숙해 질때쯤 긴 여름이 시작됐다. 조금만 움직이면 온통 땀이 솟아 옷은 금방 젖어버리고, 씻고 갈아입고, 절하고 또 씻고 갈아입고, 빨래하고, 소임보고, 여름의 그 지루한 하루 해가 언제나 짧게만 느껴졌다.

작년 6월은 윤달이 있어서 한달 내내 절을 찾는 신도들의 발길은 그칠 줄 모르고 이어져 후원은 그야말로 잠시도 숨 돌릴 틈 없이 돌아갔다. 특히 원주시자 소임을 살던 내게는 참으로 길기만 하던 하안



거 한 철이었다. 선방으로 객방으로 넓은 사중 곳곳으로... 온 사중을 뛰어도 일은 줄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소임이라 질책과 번민도 많았다. 그럴 때일수록 절하는 횟수와 시간은 늘어갔고, 그만큼 쉬는 시간이라는 것이 거의 없이 살았다. 자칫 태만한 생각이나 망상이 일어날 소임이고 보니 그럴수록 자신을 잘 추스려야 했었고 절을 할 수 있는 새벽의 1시간여의 틈은 그야말로 금쪽 같은 시간이었고 삼경 이후의 시간은 너무 귀한 시간이었다.

지루한 여름이 장마와 함께 지나가고 기다리던 행자교육원을 마치고 드디어 수계를 했다. 행자교육원의 고된 삼철일의 교육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 느꼈던 송광사는 오랜 세월을 살았던 곳 바로 그런 느낌을 주었다. 마치 객스님 마냥 후원 객실에서 성취감과 안도감에 빠져 있던 우리의 감회는 단 하루만에 강원 입방을 해야 한다는 소식으로 일시에 또다른 긴장이 시작되는 분위기로 바뀌어지고 말았다. 도반스님들은 하루만의 강원 입방소식에 산 넘어 산이라는 표정들이었고, 불멘 소리들을 해댔다.

그날 밤 조계산의 그 완만한 산등성이에 올라 서 있던 달은 예전 그 대로의 모습이었지만 내 마음은 행자시절의 그 마음을 넘어서고 있었다.

도반스님들은 행자시절 삼시 찬상을 나르던 정혜사 큰방에서 가사장삼을 수하고 입방이라는 통과의식을 거쳤던 것이다. 모두들 긴장하고 결연한 모습이 역력했다. 큰 방의 분위기는 행자시절의 막연한 상상과는 판이했고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시작이라는 생각과 함께 환희심이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송광사 사미율의반 학인스님이다. 아직도 구김이 거의 없는 가사장삼을 수할 때마다 서툴고 어색하지만 충만한 환희심을 감출 수가 없다. 행자시절 시 후원을 찾는 신도나 관광객들이 대부분 '스님'이나 '행자스님'하고 부르면 쑥스럽던 때가 바로 어제 같은데, 이제 엄연한 학인 스님으로서 있는 내 자신이 고맙기만 하다. 그렇게 길게만 느껴졌던 행자시절을 지나 '초발심 학인스님'이 되어 정혜사 큰방에서 지내게 된 첫날 밤에도 언제나 그만한 크기의 달이 조계산 능선을 타고 넘어서고 있었다. '나는 왜 출가 했는가?'를 반문해 보며, '현생에 불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다행이고 복된 일인가!'라고 위안해 보면서, '비록 많은 날들을 힘듦과 갈등 속에 보내겠지만 초발심을 잊지 않는 수행자이고 싶다'고 강원 입방 첫날 조계산을 보며 가만히 서원을 세웠다.

## 수심결(修心訣) 2

普照國師知訥 撰

혜성(慧惺) / 치문

況事上神通於達人分上猶爲妖怪之事亦是聖末邊事. 雖或現之, 不可要用.

今時迷癡輩妄謂一念悟時卽隨現無量妙用神通變化.

若作是解, 所謂不知先後亦不分本末也. 既不知先後本末欲求佛道如將方木逗圓孔也, 豈非太錯.

既不知方便故作懸崖之想自生退屈, 斷佛種性者不爲不多矣.

既自未明亦未信他人有解悟處, 見無神通者乃生輕慢欺賢誑聖, 良可悲哉.

問: 汝言頓悟漸修兩門千聖軌轍也. 悟既頓悟何假漸修, 修若漸修何言頓悟.

頓漸二義更爲宣說令絕餘疑.

答: 頓悟者凡夫迷時四大爲身, 妄想爲心不知自性是眞法身, 不知自己靈知是眞佛, 心外覓佛波浪走, 忽

더군다나 신통을 부린다는 것은 깨달은 사람의 위치에서는 오히려 요사스런 일이며 또한 성인의 지엽적인 일이다. 비록 신통을 부릴 수 있다 하더라도, 신통 부리길 원치 않는다. 그런데 요즘 미혹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은 ‘깨닫는 순간에 곧 한량없고 묘한 작용과 신통변화를 나타낸다.’고 터무니 없이 말한다.

만약에 이런 견해를 갖는다면, 앞과 뒤를 알지 못하며 또한 근본과 말단을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다. 처음부터 앞과 뒤를 알지 못하면서 불도를 구하려 한다는 것은 네모난 나무를 둥근 구멍 속에 밀어 넣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찌 큰 착오가 아니겠는가?

이미 방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기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스스로 물러나 부처가 될 싹을 잘라 버리는 사람이 적지 않다.

이미 깨닫지 못했으니 타인에게 깨달음이 있는 것도 믿지 않아서, 신통이 없는 자를 보면 곧 경시하는 마음을 내어서 현인과 성인을 무시하니, 정말 슬프도다!

물음: 스님께서는 ‘頓悟(단번에 깨달음)와 漸修(점차 닦음)의 두 문은 많은 성인들이 간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깨달음이 원래 돈오라면 어째서 점수를 필요로 하고, 만약에 닦음이 점수라면 어째서 돈오를 말씀하십니까?

돈오와 점수를 다시 설명하여 남은 의심을 끊게 해 주십시오.

답: 돈오라는 것은 범부가 미혹했을 때 四大[地,水,火,風]를 몸으로 여기고, 망상을 마음으로 여겨서 자신의 성품이 참된 法身[진리의 몸]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의 靈知[마음 속에 원래부터 갖추고 있는 앎]가 참된 부처임을 알지 못하고, 마음 밖에서 부처를 찾아 여기저기 헤매다가, 갑자기

被善知識指示入路一念迴光見自本性。

而此性地元無煩惱，無漏智性本自具足即與諸佛分毫不殊。

故云頓悟也。漸修者雖悟本性與佛無殊，無始習氣難卒頓除。

故依悟而修漸熏功成，長養聖胎，久久成聖。故云漸修也。

比如孩子初生之日諸根具足與他無異。然其力未充頗經歲月方始成人。

問：作何方便一念迴機便悟自性。

答：只汝自心更作什麼方便。

若作方便更求解會，如有人不見自眼以謂無眼更欲求見。

既是自眼如何更見。

若知不失即爲見眼，更無求見之心豈有不見之想。

自己靈知亦復如是既是自心，何更求會。

若欲求會便會不得。但知不會是即見性。

問：上上之人聞即易會，中下之人不無疑或，更迷者趣入。

答：道不屬知不知。汝除却將迷待悟之心，聽我言說。

선지식에게 깨달음에 들어가는 길을 지시받아 한 순간에 빛을 돌이켜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품의 바탕에는 원래 번뇌라는 것이 없고 완전한 지혜의 성품이 본래 다 갖추어져 있어서 바로 여러 부처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돈오라고 하는 것이다. 점수라는 것은 비록 본성을 깨달아서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오랜 옛날부터 익혀 온 버릇은 단박에 제거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깨달음에 의지하여 닦고, 차츰 익혀서 공을 이루고, 성인의 바탕을 오래도록 길러서 세월이 지난 뒤에야 성인이 된다. 그러므로 점수라 하는 것이다.

마치 아이가 갓 태어날 적에는 몸이 다 갖추어져 있어서 성인과 차이가 없으나, 그 각 기관의 힘이 충분하지 못하여 세월이 꽤 지난 뒤에 비로소 성인이 되는 것과 같다.

문：무슨 방법을 써서 한 순간에 길을 돌이켜 바로 自性 [마음]을 깨닫습니까?

답：오직 자신의 마음 속에 있을 뿐인데 다시 무슨 방법을 쓰겠는가? 만약 무슨 방법을 써서 다시 깨달음을 구한다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을 보지 못한 까닭에 눈이 없다고 하고 다시 보기를 구하려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이 있는데 다시 무엇을 보려 하는가?

만약 눈이 없다는 것을 알면 곧 눈을 보는 것이고, 더욱이 보기를 구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보지 못한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기 자신의 영지도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데 어찌 다시 깨달음을 구하는가? 만약에 깨달음을 구하려 한다면, 곧 깨달을 수 없다. 오직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이 곧 성품을 보는 것이다.

물음：상근기의 사람은 들으면 곧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심하는 바가 있으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의심이 있는 사람을 깨닫도록 하여 주십시오.

답：도는 아는 것에도 모르는 것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대는 미혹한 생각으로 깨닫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들어라.

諸法如夢亦如幻化. 故妄念本寂, 塵境本空. 諸法皆空之處靈知不昧.

卽此空寂靈知之心是汝本來面目亦是三世諸佛歷代祖師天下善知識密密相傳底法印也.

若悟此心, 眞所謂不踐階梯, 徑登佛地步步超三界, 歸家頓絕疑便與人天爲師, 悲智相資具足二利, 堪受人天供養日消萬兩黃金.

汝若如是, 眞大丈夫, 一生能事已畢矣.

問: 據吾分上, 何者是空寂靈知之心耶.

答: 汝今問我者是汝空寂靈知之心. 何不返照猶爲外覓.

我今據汝分上直指本心令汝便悟, 汝須淨心, 聽我言說.

從朝至暮十二時中或聞或見, 或笑或語, 或瞋或喜, 或是或非種種施爲運轉.

且道畢竟是誰能伊麼運轉施爲耶. 若言色身運轉, 何故有人一念命終都未壞爛卽眼不自見, 耳不能聞, 鼻不辨香, 舌不談論, 身不動搖, 手不執捉, 足不運奔耶.

是知能見聞動作必是汝本心不是汝色身也. 況此色身四大性空如鏡中像亦如水月, 豈能了了常知明明不昧, 感而遂通恒沙妙用也. 故云神通并妙用運水及搬柴.

모든 法[모든 정신적, 물질적 현상]은 꿈과 같고 허깨비와 같다. 그러므로 망상은 본래 고요하고 현상도 또한 본래 공한 것이다. 모든 법이 다 공한 곳에서 영지는 어둡지 않으니, 곧 이 空寂靈知[텅 비고 고요하고 신령스럽게 앎]의 마음이 바로 그대의 本來面目[참마음. 불성]이며 또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히 전한 진리이다.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정말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지위에 올라 한 걸음에 삼계를 초월하고, 부처의 경지에 돌아가 단번에 의심을 끊고, 바로 인간과 천상신들의 스승이 되어 자비와 지혜를 베풀어 自利와 他利를 다 갖추면, 인간과 천상의 공양을 받아 날마다 귀한 공양물을 쓸 수 있다.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진정한 대장부요, 일생에 할 수 있는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질문: 나 자신으로 본다면, 어떤 것이 空寂靈知의 마음입니까?

답: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것이 그대의 공적영지의 마음인데, 어찌 돌이켜 안을 보지 않고 오히려 밖에서 찾는가?

나는 지금 그대 자신에 의거하여, 본래의 마음을 바로 가리켜 그대를 곧 깨닫게 할 것이니, 그대는 마음을 비우고 나의 말을 들어라!

하루 24시간 중에 듣고 보고, 웃고 말하고, 성내고 기뻐하고, 울다하고 그르다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은 결국 누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인가? 만약 육신이 행동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어째서 방금 죽은 사람은 (그 육신이) 온전한데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코로 냄새맡지 못하고, 입으로 말하지 못하고, 몸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손으로 잡지 못하고, 발로 뛰지 못하는가?

이것은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은 그대의 본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더구나 이 몸의 (구성요소인) 四大는 그 바탕의 공함이 거울 속의 영상과 같고 물 속의 달과 같은데, 어찌 분명하게 항상 알고 밝고 밝아 어둡지 않고, 묘한 작용을 체득하고 통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한 작용은 물을 길고 나무를 나르는 것[일상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다.

■ 도서판매안내 ■

명추회요 상·하  
**마음을 바로 봅시다**

풀어쓴이 圓珣 스님(송광사 강원 강사)

가 격 : 상권 22,000원 하권 25,000원  
판매처 : 송광사 내 불일서점  
☎ (0661)755-5303  
송광사 : (농협) 615107-51-014821  
☎ (0661)755-5305

※ 통신으로도 신청을 받습니다.

이 책의 수입금 전액은 송광사 강원외교의 발전기금으로 쓰여지게 됩니다.

**이 책의  
인연이 아름답기를**

맑은 인연을 아는 사람은 바른 법을 얻고, 바른 법을 얻은 이는 청정한 도를 이룬다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 하더라도 인연의 흐름을 잘못 보면 하는 일이 순조롭지 못하나, 깨끗한 법으로 세상의 흐름에 수순하는 자는 그 일에 관련된 반연을 아름답고 평등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인연은 맑고 여유로운 삶이니, 거기에 하늘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법이란 이런 인연을 보게 하여, 자기 마음에 청정한 불국토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항상 빛나는 인연의 삼매 속에 계시면서 밝고 청정함으로 중생에게 이 법을 가르쳐 세상에 펼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좋은 인연을 그대로 구현하심으로 근세의 진정한 스승이라 추앙받는 큰스님과의 인연! 이 어려운 세태 그 시절 그 인연을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으로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의 법을 왜곡시키는 눈 먼 모든 행위에 조금도 개의치 아니하고, 초연하게 올곧은 수행자의 태도만을 보이며 당당하셨던 老師의 품위! 그 모습은 평범한 일상에서 단지 山僧의 신분으로 당신의 분을 지켜 가는 생활 그 자체였습니다.

조그마한 山房에서 名利僧의 유혹에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한 산승으로서 그 의연했던 처신이란! 지금도 태산같이 커 보입니다. 그 큰 자취가 法身舍利로서 허공에 메아리치니, 법을 구하는 이에게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 되어 주곤 합니다.

그러한 큰스님께서 당신의 공부에 指針 삼아 평생 그렇게도 좋아하셨고, 공부하는 수행자와 한국불교를 위하여 하루빨리 한글로 번역되어야 할 책이라고 말씀하셨던 『宗鏡錄』, 아마 이 『종경록』이 당신 공부의 전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종경록』의 요점만을 추린 『冥樞會要』가 서툴지만 늦게나마 『마음을 바로 봅시다』로 한글 풀이되어 이 세상에 인연을 맺습니다.

'98년 6월 『마음을 바로 봅시다』의 상권 초판이 장경각에서 나왔을 때, 송광사 방장 스님께서 책을 보시고는 대뜸 “원순 시님이 효자야, 평상시 시님께서 늘상 하시던 말씀을 시님이 평생 좋아하셨던 책제목으로 했으니 큰스님께 효도하는 거야”라고 말씀하시어 저를 기쁘게 해주셨습니다.

큰스님을 곁에서 오랜 세월 모시고 살며 감화받은 인연으로 당신의 은사이신 구산 큰스님으로부터 “너는 내 상좌가 아니고 성철 스님 상좌야”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노사와의 인연이 지중했던 방장 스님께서 『마음을 바로 봅시다』의 상권 초판에 기꺼이 당신의 법문을 신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책에 대한 법어까지 내려 주시니, 그 크신 은혜 어떻게 갚아야 될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이 책을 풀어 쓴 이의 덕이 부족한 탓에 금번 상권의 재판과 하권의 초판을 다른 출판사 이름으로 내놓게 되니, 그 모양새가 단정하지 못해 방장 스님께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잘못된 품새를 마음 아파하자 그래도 모든 것을 이해하여 주시며 “세월이 흐르면 세상 사람이 다 알아주고 좋아질거야! 괜찮다, 괜찮아!” 하시는 방장 스님의 자비로운 말씀에 앞날 좋은 일이 있으리라 기대해 봅시다. 이런저런 과정에 다만 부족하나마 이 책이 많은 사람에게 광명이 되어 세상을 밝히도록 범공양을 올립니다.

이 책과 인연을 맺으실 분, 아름다운 인연으로 만드시 그의 삶에 부처님 가피가 충만하고 性徹 老師의 法恩이 가슴에 넘칠 것입니다. 그 공덕으로 맑고 편안한 법의 희열이 세상에 가득 차고 부처님의 청정한 국토가 시방세계에 그득하니, 모든 중생이 함박 웃으며 행복해 하십니다.

귀의불 귀의법 귀의승.

1999년 1월 송광사 인월암에서



## 소년소녀가장 돕기 후원안내

귀의삼보하옵고.

추위가 심함은 매화의 향기가 가까이 다가옴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달라져 가는 인정들 속에서 오늘날 불교도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는 보리의 갈구가 중생에 대한 회향으로 전환될 때 우리는 좀더 따스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어려울수록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를 잃었거나, 부모가 있다해도 장애자이거나 등의 여러 사정으로 인해 가장아닌 가장의 위치에서 어렵게 생활하는 소년소녀가장들은 더욱 더 마음이 아프고 생활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 훈훈한 정을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난 한 해동안 소년소녀가장 돕기에 동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변함없는 관심과 동참바라며, 아울러 새로운 분들의 동참을 권해 봅니다.

늘 부처님의 가피가 항상하기를 기원합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3490-0043410 ■ 예금주 : 소년소녀(황소연)

\* 연락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우: 540 - 930) 송광사 강원 혜 룬 (0661) 755 - 5302

### ♣ 불교자료 CD 판매

기초교리부터 경륜론 삼장에 이르기까지 총 망라한 방대한 자료를 작은 CD 한 장에 담았습니다. 불교에 관심 있으신 분에게 좋은 지침서가 되리라 믿습니다.

- 주요내용 : 논문 500여개, 문화, 그림, 청년회, 학생회, 어린이회, 레크레이션, 유적답사, 참고자료, 큰스님 법문, 불교관련 도서목록, 대만 불광사전, 아함경 색인프로그램 등.
- 가 격 : 오천원
- 판매처 : 송광사 내 불일서점(0661-755-5305), 농협 : 615107-51-014821 (예금주 송광사)

### ♣ 강의(특강) 테이프 보급

우리 송광사에서는 아래와 같은 강의(특강) 테이프를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으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TAPE ... 금강경 오가해 1~4 (85개) 지운 스님 / 120,000원
- 법화경 1~2 (33개) 지운 스님 / 50,000원
- 인도철학 (18개) 정연 스님 / 30,000원
- 차 이야기 (17개) 용운 스님 / 30,000원
- 유식 30송 (11개) 정화 스님 / 25,000원
- 비디오 TAPE ... 영성의 불교적 이해 (1개) 지운 스님 / 7,000원
- 설법하는 법 1~4 (4개) 진옥 스님 / 30,000원
- 구입처 : 송광사 강원 서기 ☎ (0661)755-5302 ※ 통신으로 신청하셔도 보내드립니다.
- 우체국 온라인 : 501676-0027541(가입자 : 서화교)

본 테이프의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 편집후기

혹독한 시련을 딛고  
매화는 꽃을 피우듯이,  
대중스님과 편집위원스님들  
덕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고 정혜사 겨울호가  
무사히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번 호는 다른 때보다  
일찍 제작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해제에 임박해서야  
어렵게 완성이 된 것을 보면,

전임 편집장스님들의  
어려움을 절실히 느끼며,  
더 충실한 여름호를  
기대해 봅니다.

얼굴을 스치는 바람이  
많이 부드러워졌으니, 매화가  
머지 않아 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열린 세계에서  
함께 살기를 발원합니다.



### ❖지 이야기

겨울이 찾아오면 승속(僧俗)을 떠나  
제일 큰 일은 먹거리 장만일 것  
입니다.

김치담그기는 우리민족의 겨울나  
기의 소중한 슬기로운 풍속으로  
우리 송광사에서도 조계산의 맑은  
개울물로 절이고 씻어서 김장을 하  
였습니다. 대중스님들의 정성이 깃  
들어 맛있는 김치가 발우에 담길 것  
같습니다.

##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김갑숙, 류인석, 이옥남, 이경희, 양숙현, 임상수  
일선화, 손정남(선해경), 신형환, 정득주, 김연홍  
노희봉, 이기상, 송일심행, 강병균, 손혜정  
천영희

## 장학금 기탁해 주셨습니다.

총무원장스님, 울주스님, 울원장스님, 총무스님  
돈건스님, 무비스님, 현봉스님, 황명스님,  
주경 스님, 원행 스님, 익명의 스님들  
송광사 목우회, 불일회, 원효사, 송광사 목우회  
부산 관음사, 부산 선행회, 박 정련화, 김민정  
최 무진행

## 정혜사 후원자를 모십니다.

정혜사가 '호'를 거듭할수록 여러 불자님들의 호평  
과 때로는 질책으로 나날이 성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은 여러 면에서 부족합니다.

저희들의 맑은 음성을 전하는 데는 여러 불자님들  
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정성이 모아지면 큰 힘이  
됩니다.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 온라인 번호로 입금해 주시  
고 '정혜사' 편집실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정혜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불자님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 502864-0205429-17

예금주 : 서화교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 540-930)

송광사 강원내 정혜사 편집실

☎ (0661)755-5302

“ 조계의 맑은 물이 흐르다 머무는 송광사 전통강원에서는  
보조스님의 정혜결사 정신을 오늘에 되살려 戒·定·慧 삼학의 실천 속에서  
맑고 아름다운 수행자의 길을 같이 갈 도반 스님을 찾습니다. ”

## 신입 및 편입방부 안내

2543년 송광사 강원 신입 및 편입방부를 다음과 같이 받습니다.

■ 방부받는 반

치문반 .....	신입 00 명
사집반 .....	편입 00 명
사교반 .....	편입 0 명

■ 자 격

- 치문반 : 신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집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사교반 : 편입에 결격 사유가 없는 스님

■ 제출서류

방부원서 .....	2부
은사스님 추천서 .....	1부
승적사본 .....	1부
승려증 사본 .....	1부
수료증(편입생).....	1부
사 진(3×4) .....	3매
건강진단서 .....	1부
방부금 .....	20만 원

- 준비물 : 대가사(비구), 만의가사(사미), 장삼, 발우
- 전형방법 : 서류, 면접
- 방부기간 : 불기 2543년 3월 2일 ~ 5월 25일
- 문의처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 (0661) 755-5302

松廣寺 傳統講院



# 修禪社

曹溪山 精氣받아 僧之祖宗 터전되고  
十六代 國師王師 代代胚出 땃자리라  
두어라 한땃줄 이어 十八代孫 보리라

**修禪社** 스님들께서 참선 정진하는 禪院입니다.